

04

#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April 2025  
vol. 285

Season's Finest



# 150

YEARS

## AUDEMARS PIGUET

*Le Brassus*



Hermès, the endless line

# Contents

- 06 **\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08 **\_SELECTION 1** 로맨틱한 벚꽃 나들이로 설렌 그녀를 위한 워크엔드 스타일.
- 09 **\_SHAPE OF MY TIME** 우아함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오벌, 쿠션 셰이프 워치 셀렉션.
- 10 **\_SELECTION 2** 여유로운 주말 나들이에 스타일리시한 포인트를 더할 워크엔드 룩.
- 11 **\_NEW WORLD, NEW TECH** 소위 Z 세대라 일컫는 디지털 제너레이션의 눈길을 사로잡는 완벽한 테크 리스트.
- 14 **\_GETTING BACK ON TRACK!**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페어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을 비롯해 각종 문화 예술 행사가 붓물처럼 쏟아지는 3월, 간만에 다채로운 시골벽적함이 도시를 채웠다. 세계 정세와 맞물린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꽤 고무적인 풍경이다.
- 17 **\_예술가로서의 완전한 자유를 향해** 올봄 아트 바젤 홍콩 기간, 홍콩 컨벤션 센터(HKCEC)에 무라카미에게 헌정하는 대형 전시 부스를 차린 루이 비통과의 20년 넘는 세월을 관통하는 브랜드 협업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 현지에서 직접 일대일 대화로 접해본 그의 면면은 예상을 뒤엎고 훨씬 더 신술하게 다가왔다.



26



올해 오데마 피게는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하우스 오브 윈더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더불어 차세대 셀프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 '칼리버 7138'을 공개했다. 혁신적인 '올인원(all-in-one)' 크라운을 도입해 모든 기능을 하나의 크라운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퍼페추얼 캘린더 시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문의 02-543-2999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캘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 18 **\_A CENTURY OF GRACE**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 도시에 자리한 펜디 하우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지향적 비전을 만나볼 시간.
- 22 **\_THE ART OF TRAVEL**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 향상에 주력하는 투미가 탄생 50주년을 맞았다. 투미의 수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빅터 산츠(Victor Sanz)와 아시아퍼시픽 & 중동 지역 헤드 아리스 마롤리스(Aris Maroulis) 부사장을 만나 감화를 물었다.
- 24 **\_SAVOIR-FAIRE** 셀린느 고유의 디자인적 매력뿐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온 장인 정신이 담긴 가죽 제품.
- 25 **\_NEW MODERNISM** 일상의 순간을 특별함으로 만드는 래트(LATT)의 선구적 태도로 완성한 정제된 실루엣.
- 26 **\_GET THE LIST** 타임리스한 스타일을 연출해줄 스프링 쇼핑 리스트.
- 28 **\_INTO THE LIGHT** 눈부신 햇살 속, 남다른 오라의 그녀와 만나다.
- 36 **\_SPRING STANDARD** 잘 재단된 테일러드 재킷과 편한 데님 재킷, 스포티한 점퍼까지, 봄 스타일링의 지침서가 될 남자 아우터 4.
- 37 **\_장밋빛 노을과 푸르른 향기의 축복** 홍콩의 문화 예술을 가장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봄날 문을 연 로즈우드 홍콩(Rosewood Hong Kong). 세계적인 현대미술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한데, 특히 올봄에는 다국적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여기저기에서 펼쳐지면서 열기 가득한 풍경이 호텔을 감쌌다.
- 38 **\_EDITOR'S PICK** 건조한 날씨에 푸석해진 피부와 머릿결에 영양을 채우고 싱그러움과 내음을 더하는 시간.

© GRAFF.COM





### Like a Car

디자이너 알프 로렌의 오랜 취미는 차(car) 수집이다. 그런 그가 클래식 카에서 영감을 받은 '더 랠프' 스물둘백을 공개했으니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이탈리아 장인이 직접 선별한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해 유연하지만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양 사이드의 시그니처 벨트 디테일과 금속 플레이트, 가방 상단에 위치한 장성스러운 스티치의 조합으로 데일리 백으로도 손색없다. 이 밖에 넉넉한 수납력의 토트백, 포인트 백으로 활용 가능한 버킷백 등도 출시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해볼 것. 3백60만원. 문의 02-3467-6560



### Check to Check!

두 뺨을 물들인 사랑스러운 장밋빛 블러시,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뷰티 주공도라스드 엠팡스 #238 로즈 아호당드** 수채화처럼 투명하면서도 선명한 발색으로 얼굴에 생기를 선사한다. 8g 7만2천원대. 문의 080-805-9638 **맥 글로우 쿠션 블러쉬 #히트 인덱스** 마시멜로처럼 폭신한 제형이 특징이며 비터민 E, 호호바 & 포도씨 오일을 함유해 들뜨지 않고 촉촉한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7.3g 4만7천원대. 문의 1644-3748 **디올 뷰티 루즈 블러쉬 #271 핑크메니아** 여러 번 레이어해도 묻치지 않고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베이비 핑크 컬러의 파우더 타입 블러시. 5.5g 7만6천원대. 문의 080-342-9500 **구찌 뷰티 구찌 블러시 드 보페 - 치즈 & 아이 파우더 루미너스 매트 #03 레디언트 핑크** 코랄 핑크 컬러로 동양인 피부에 제격이며 치즈는 물론 아이 메이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5.5g 9만3천원대. 문의 080-850-0708 **포토그래퍼 최민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Style It Up!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한 헤어 스타일링을 선사할 헤어 디바이스 3. (위부터 차례대로) **다이슨 슈퍼닉 뉴컬 헤어드라이어 재스퍼 플럼** '두피 보호 모드'를 적용한 뉴컬(Nural™) 센서 기술로 헤어에 닿는 열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59만9천원대. 문의 1588-4253 **바이오프로그래밍 헤어뷰론 27D 스트레이트 플러스** 고분고분한 곱슬머리를 완벽하게 펴주는 것은 물론 텁스럽고 굵은 웨이브 헤어 스타일링도 가능하다. 특수 세라믹 소재로 제작해 고온 모드로 장시간 사용해도 머리카락 손상을 최소화해준다. 1백4만8천원. 문의 02-6949-4455 **사코 뷰티 사코 플렉스타일 에어 스타일러 HD434** 5개의 스타일링 롤로 구성되어 스트레이트부터 볼륨, 컬 헤어까지 가능한 다채로운 헤어 연출을 시도해볼 것. 44만9천원대. 문의 1644-9245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 스카프 휘날리며

다양한 스타일과 연출법이 특징인 볼 스카프는 없어서는 안 될 패션 필수품이다. 예르메스 '그르르르! 반다나(Grrrr! Bandana)'는 유틸리티 있는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 용맹한 맹수의 모습을 반다나 스카프에 수놓았다. 영국 아티스트 앨리스 셸리(Alice Shirley)가 디자인한 작품으로 동물원 속 검은 곰과 그 주변을 감싼 밤하늘의 작은 별들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와 실크 소재로 완성해 은은한 광택을 선사한다. 스타일링법도 간단하다. 주얼리와 함께 손목에 레이어드하거나, 키 링 대신 가방에 묶어 장식해도 좋다. 아니면 가수 GD처럼 헤드 스카프로 활용해 트렌디한 면모를 발휘해보자. 65x65cm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 TIMELESS ELEGANCE



올해는 그라프의 아이코닉한 주얼리 컬렉션, 그라프 버터플라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50년이 되는 해다. 그라프 버터플라이 컬렉션은 1975년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감각이 묻어나는 다이아몬드 펜던트와 함께 탄생했다. 이처럼 특별한 해를 기념해 그라프에서 버터플라이 하이 주얼리 디자인 컬렉션 캠페인을 공개한다. 런던 메이페어에 위치한 그라프 아틀리에에서 수작업으로 완성한 새로운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는 57,13캐럿의 스노 세팅 파베에 메탈드로 풍성한 곡선과 과감한 질러감을 자랑하며 강렬하게 네크라인을 감싼다. 이와 함께 그라프의 장기간 화려하고 섬세한 다이아몬드 세팅 기술로 완성된 다양한 하이 주얼리 피스를 만나볼 수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그라프의 버터플라이 컬렉션은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욱 독창적인 다이아몬드 주얼리의 위상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의 02-2150-2320

# EXHIBITION



### Dream and Reflection

태국 동시대 미술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대규모 기획전이 열려 문화 예술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에서 4월 5일부터 20일까지 펼쳐지는 <태국 현대미술 - 꿈과 사유>전. 미술 평론가 박일호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전시 감독을 맡아 기획한 전시로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등을 아우르는 태국 현대미술가 24인의 작품 1백10여 점을 '꿈'과 '사유', 두 섹션으로 나눠 선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미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온 한세예스 24문화재단에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태국 현대미술 전시로 참여 작가 중 4명은 서울을 직접 찾았다. 먼저 젊은 작가 14인의 역동적인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꿈' 섹션에서는 우리나라 광주를 비롯해 세계 우수 도시에서 비엔날레 참가 경력이 돋보이는 임하타이 수왓타나인, 서정성이 돋보이는 파스텔 톤 회화로 눈길을 사로잡는 차야 풍 짜루앗, 페미니즘과 노동자를 향한 보이지 않는 사선을 담은 회화가 인상적인 줄리 베이커 앤드 서머가 방한했다.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이슈를 다룬 '사유' 섹션에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작가 리고릿 따라와닛을 비롯해 밋 짜이 인, 디센 두앙다오, 팻타라 찰리야차차이 등 중견 예술가 10인의 작업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이 중 직접 한국을 찾은 비 타공 팻타노앗 작가는 인간의 신체 내부가 우주의 무한성을 상징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앞은 금속 조각을 재색한 평면 작업 'Within-without' 시리즈와 시를 도구로 생성시킨 이미지를 활용한 평면 작업 등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몰랐던 태국,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거나 무심히 지나쳤던 태국의 모습과 다른 진정한 태국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박일호 전시 감독의 말처럼 태국 예술가들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갖게 될 한층 있는 기회다. 무료 전시. 글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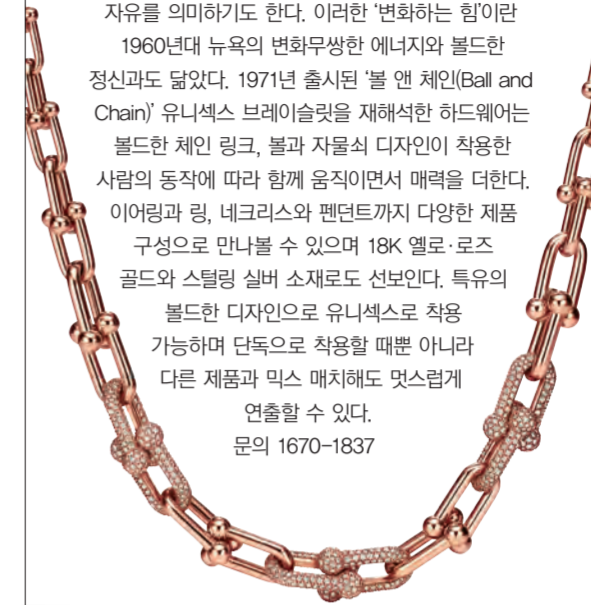
### Net Work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네트 백은 담은 물건의 형태와 컬러에 따라 달라 보이는 매력을 지녔다. 니트, 라탄, 레더 등 소재도 다양해지는 추세이며, 시원한 메시는 봄여름 백 소재로 자주 쓰인다. 샤넬 네트 백은 견고한 램 스킨과 촉촉하고 탄탄한 메시 소재로 완성해 네트 백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다. 액세서리 같은 작은 아이템을 분실하거나, 가방 세이프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특히 분리형 미니 파우치를 더해 가방 하나를 사면 파우치를 덩어로 얻은 듯한 기분을 준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 Bold Move

1962년 디자인을 바탕으로 탄생한 티파니 하드웨어 컬렉션은 변화를 이끄는 사랑의 힘을 표현한다. 브랜드 티파니가 탄생한 도시인 뉴욕처럼 이 컬렉션은 강인하고 볼드한 정신에서 영감받았으며 끊임없는 회복력과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하는 힘'이란 1960년대 뉴욕의 변화무쌍한 에너지와 볼드한 정신과도 닮았다. 1971년 출시된 '볼 앤 체인(Ball and Chain)' 유니섹스 브레이슬릿을 재해석한 하드웨어는 볼드한 체인 링크, 볼과 자물쇠 디자인이 착용한 사람의 동작에 따라 함께 움직이면서 매력을 더한다. 이어링과 링, 네크리스와 펜던트까지 다양한 제품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18K 옐로·로즈 골드와 스텔링 실버 소재로도 선보인다. 특유의 볼드한 디자인으로 유니섹스로 착용 가능하며 단독으로 착용할 때뿐 아니라 다른 제품과 믹스 매치해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670-1837



### 깨어나는 봄

파인 주얼리 브랜드 키린(Qeelin)이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올루 가든 컬렉션(Wulu Garden Collection)'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에는 핑크 사파이어, 자수정, 아코야 진주 등 다채로운 보석을 활용해 꽃이 만개한 정원의 생동감을 담아냈다. 핑크 사파이어는 따뜻한 색조로 봄의 낭만과 활력을 표현하며 자수정은 신비로운 분위기로 컬렉션에 깊이를 더한다. 또 완벽한 구형과 빛나는 광택이 특징인 아코야 진주는 우아한 감성을 완성한다. 특히 키린의 상징적 모티브인 울루(Wulu) 모티브를 로매틱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행운과 긍정적 에너지를 전한다. 정원에서 피어나는 자연의 조화를 표현한 이번 컬렉션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모든 제품은 롯데 본점 예비뉴얼 3층 키린 매장과 갤러리야 명품관 이스트 2층 키린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905-3453

# COLORFUL, WONDERFUL



손목을 선명하게 감싸는 컬러 스트랩 워치.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론진 콘퀘스트 34mm** 선레이 다이얼과 러버 스트랩 모두 파스텔 블루로 통일해 부드럽고 포근한 분위기를 전한다. 2백90만원. 문의 02-3479-1940 **볼랑방 레이디비드 컬러즈 레인보우 34.9mm** 화이트 골드 케이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과 크라운에 그린 컬러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추가해 싱그러운 분위기를 배가했다. 5천58만원. 문의 02-3479-1833 **불가리 알루미늄 GMT X FENDER** 알루미늄 케이스를 장착하고, 다크 브라운 러버 베젤과 스트랩을 더해 피부에 닿는 느낌이 편안하다. 6백만원대. 문의 02-6105-2120 **파넬라이 루미노르 듀에 루나 38mm** 핑크 컬러 스트랩이 손목에 화사함을 선사하고 PAM 클럭 릴리즈 시스템\* 덕분에 별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다. 1천3백만원대. 문의 02-1670-1936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화사한 스카이 블루 컬러의 울 소재 아일릿 니트 카디건 47만5천원 래트.

18K 핑크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39개를 세팅한 포스텐 라이즈 네크리스 가격 미정 프레드.

펄링 디테일의 풀 그레이인 소가죽 소재로 제작한 만치 소백. 22x12x8cm, 백, 39만8천원 예코.

선레이 퍼플 다이얼과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이 청량한 분위기를 배가하는 론진 콘퀘스트 34mm 4백50만원 론진.

별 모티브 패치와 레터링 디테일의 스웨이드 스타 & 메탈릭 레더 힐탑 나파 슈퍼스타 74만8천원대 골든구스.

터뷰이즈 머더오브발을 둘러싼 총 0.14캐럿의 다이아몬드 32개와 반대편에 자리한 무빙 다이아몬드 1개 조합을 이루는 헤피 하트 핑크 8백25만원 쇼피드.

옐로 골드 소재에 블루 컬러의 타워이즈와 총 0.1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바스 드림 아아름 4백90만원 볼가리.

클래식한 트윈드 소재의 캡 가격 미정 샤넬.

아세테이트 소재의 코렐 컬러 버터플라이 코렐 컬러 버터플라이 S320 선글라스 61만원 셀린느 by 에디 슬리먼.

송마에서 영감을 얻어 새겨진 로즈메리로 장식한 그레이드 그루스슬 에넬로프(Envelope) 포인팅 80만원 콜로에.

일본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의 시그너처, 스마일 캐릭터가 유쾌한 감성을 더하는 LV x TM 체리 블러섬 백참 85만원대 루이 비통.

바탕 빛으로 환상성을 높인 코튼 소재가 연트 다이드 화이트 데님 23만5천원 마이클 코너를 코어스.

오픈워크 다이얼에 핑크 러버 스트랩을 장착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전하는 빅뱅 유니코 핑크 시파이어 42mm 1억9천만원대 워블로.

# for her Selection

로맨틱한 빛꽃 나들이로 설렌 그녀를 위한 위크엔드 스타일.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모노그램 패턴의 핑크 가죽에 아이코닉한 로고 버클로 포인트를 준 M-Art 로레토스 벨트 1\*45만원 MCM.

- 래트 1800-5700 예코 1833-2611
- 프레드 02-514-3721 론진 02-3479-1940 골든구스 02-519-2937
- 쇼파드 02-6905-3390 볼가리 02-6105-2120 샤넬 080-805-9628
-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02-2143-1792 루이 비통 02-3432-1854
- 셀린느 by 에디 슬리먼 1577-8841 콜로에 02-545-7778
- MCM 1600-1976 워블로 02-540-1356

에디터: 김정은, 사진: 정영민

# Shape of My time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오벌, 쿨션 셰이프의 워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쇼파드 해피 스포츠 유려한 오벌 셰이프의 루센트 스틸™ 케이스에 중앙에 기묘세 장식에 더한 실버 컬러 다이얼을 매치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무빙 다이아몬드 7개를 세팅한 아이코닉 디자인이 특징인 오토매틱 무브먼트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90

워블로 스피릿 오브 빅뱅 김골드 화이트 파베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빅뱅 워치로 새틴 마감 및 폴리스 처리한 18K 링 골드에 1백6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베젤에는 4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극강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8천8백48만원. 문의 02-540-1356

티파니 티파니 이터니티 워치 28mm 쿨션 셰이프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1.63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과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컬러 다이얼로 완성했으며, 아워 마커에 각기 다른 12개의 방식으로 커팅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특별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피아제 라임라이트 토노 워치 27x38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총 약 1.79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86개를 세팅하고 다이얼에는 총 약 0.76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백92개를 세팅했으며, 바늘에는 총 0.05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3개를 세팅해 극강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자체 제작 690P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9천만원. 문의 1668-1874

까르띠에 베누아 워치 스몰 우아한 타원 형태가 돋보이는 상징적인 워치로 핑크 골드 케이스와 베젤에 세팅한 다이아몬드로 화려함을 더했다.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3천5백만원대. 문의 1877-4326

에디터: 정영민



베이지 컬러 카프 스킨 소재를 사용한 D'ORNORMANDE 미니 세들백, 19.5x15x5.5cm, 가격 미정 **다올 맨**.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비제로원 네크리스 1천8백90만원 **불가리**.



스크래치 방지와 내구성이 좋은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제작한 옐로 컬러 트루 스키퍼 오토매틱 스켈레톤 3백54만원 **라도**.



옷 앞면에 라카 메르세데스-벤츠와 몽클레르 로고를 더한 리버시블 보어 5백4만원 **몽클레르 x 메르세데스-벤츠 by 니고**



아이코닉한 TH 자수로 포인트를 준 코튼 소재 리미티드 컬러 볼캡 6만5천원 **타미 힐피거**.



아이 활동에 필수품인 그린 컬러 선글라스 29만원 **타미 힐피거** 케어링 아이웨어 코리아



귀여운 여우를 표현한 폭스 백 점 19만5천원 **메종키조네**.



달고라 형태의 옐로 골드 버블과 케이를 모티브로 특징인 포스텐 브레이슬릿 2천4백64만원 **프레드**



카프 스킨과 스웨이드가 부드러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리오 롤 스타드 가격 미정 **로에베**.



샤시 스타일과 패턴에서 강렬한 표현을 선사하는 데님 세트 가격 미정 **타미 힐피거**



카키, 베이지, 그린, 블랙 등의 컬러 플레이를 선보이는 에코는 케이스 10x8x1cm, 10만8천원 **에코**

# for him Selection

맛있는 브랜치를 즐기러 근교로 드라이브 가볼까요? 여유로운 주말 나들이에 스타일리시한 포인트를 더할 워크엔드 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브랜드 로고를 새긴 메달 루프와 가죽 버클이 돋보이는 스트레치 캔버스 벨트 76만원 **토즈**.



발목 부분에 핑크 & 그린 라인을 더한 흰 화이트-스 1만8천원 **몽클레르**



브랜드 창립 270주년을 맞아 헤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새롭게 선보이는 히스토릭 222 가격 미정 **바쉐론 콘스탄틴**.

- 다올 맨 02-3280-0104 불가리 02-6105-2120
- 몽클레르 컴렉션 0030-8321-0794
- 라도 080-500-1962 타미 힐피거 1800-5700
- 메종키조네 02-545-7778
- 케어링 아이웨어 코리아 02-517-6060
- 프레드 02-514-3721 로에베 02-3479-1785
- 마르니 02-772-3233 에코 1833-2611
- 토즈 02-3438-6008 몽클레르 02-519-2937
-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에디터 신정영 스타일리스트 임희영

# New World, New Tech

소위 Z 세대가 일컫는 디지털 제너레이션의 눈길을 사로잡는 완벽한 테크 리스트. 미학적 디자인은 물론 완벽한 기능까지 겸비했다.

PHOTOGRAPHED BY YI JOO HYUK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로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활성화 시 최대 20시간 청취 가능한 실버 컬러의 에어팟 맥스 76만9천원대 **애플**. 문의 080-330-8877. 소리의 파동과 하늘을 가르는 구름 등 자연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완성한 웹 레이어 케이스 4만9천원 **그레그**. 문의 1533-1321.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로, 소나의 독자적 기술을 적용한 음향 확산 프로세서를 적용해 웅장한 중·저음과 선명한 고음을 재현하는 울트 필드 1(ULT FIELD 1) 14만9천원 **소니**. 문의 1588-0911.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디자인을 자랑하며 소프트웨어인 iOS 17을 지원하는 아이폰 15 프로 가격 미정 **애플**. 문의 080-330-8877. 새들 스티치로 말 모티브를 새긴, 스위프트 카프 스킨 소재의 맥세이프 카드 케이스 93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몽클레르 마이스터스틱 필기구와 블랙 보디가 연상되는 디자인이 특징이며 세계적인 음향 엔지니어 악셀 그렐과 협업에 완성한 시그니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MTB 03 인이어 헤드폰 56만원 **몽블랑**. 문의 1877-5408. 24개의 LED 조명을 장착한 사파이어 글라스로 다채로운 컬러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며, 모노그램 플라워를 비롯해 하우스의 다양한 디자인 코드를 설정할 수 있는 지름 44mm 케이스의 명부르 호라이즌 라이트 업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최대 18시간의 재생 시간을 자랑하며 수심 1m에서 30분간 사용할 수 있는 'IP67'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갖춘 그린 컬러 베오사운드 A1 2세대 41만9천원 **뱅앤올룹슨**. 문의 02-518-1380. 스테디셀러인 다-럭스(D-Lux)의 후속작으로 출시했으며 사진 편집 프로그램과 호환할 수 있는 DNG 파일 포맷을 지원하고 '라이카 포토스 (Leica FOTOS)' 앱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 바로 공유할 수 있는 라이카 디럭스 8과 하프 케이스 각 2백65만원, 25만원 **라이카**. 문의 1661-0405. 에디터 신정영





LÄTT



홍콩을 열기로 채운 '슈퍼 마치(Super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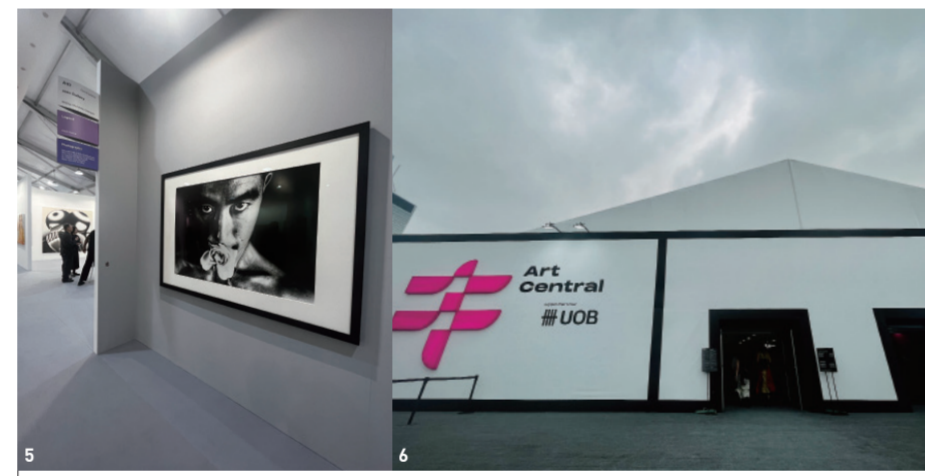
# Getting Back on Track!

'지울 수 없는 각인을 남기는 도시(indelible city)! 동서양의 피를 물려받은 홍콩 출신의 한 저널리스트가 지구촌을 강타한 팬데믹 기간에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담아낸 책을 우연히 보고는 곧바로 집어 든 적이 있다. 물론 지구촌의 어느 도시든 잇기 힘든 매력을 지닌 메트로폴리스로 자리매김하기를 열망하겠지만, 최근 수년에 걸쳐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뽐내는 아시아의 중추적인 허브 도시로서 홍콩을 응원하는 이들이 꽤 많았을 것 같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해마다 춘삼월이 가까워지면 엄청난 북적거림 속에서도 묘한 에너지의 미학에 이끌려 축제 같은 구간을 지내곤 했던 기억을 되살리게 됐다. 그리하여 팬데믹 기간 유난히 공공 막혔던 이 도시의 문이 열려 다시금 찾았을 때 '예전 같지 않은' 기운을 대하고 실망한 이들도 상당수였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올봄의 홍콩은 달라졌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을 비롯해 각종 문화 예술 행사가 붓물처럼 쏟아지는 3월, 간만에 예년 분위기가 되살아난 듯 다채로운 시끌벅적함이 도시를 채웠다. 세계 경제와 맞물린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꽤 고무적인 풍경이다. 홍콩의 봄이 돌아온 것일까.

홍콩의 3월, 특히 춘삼월을 끼거나 앞둔 마지막 주는 문화 예술계에서 '광란의 주간'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을 비롯해 아트 센트럴(Art Central) 같은 현대미술 페어, 미술품 경매와 블록버스터 전시 개막, 각종 공연과 컨퍼런스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줄지어 열리고 다국적 손님이 도시를 팔색조처럼 수놓는 역동성 덕분이다. 밀도 높은 도심에서 뻗뻗하게 늘어난 건물들, 그리고 아기자기한 골목길 사이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미술계 '패피(패션 피플)'를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오래된 풍경'은 아니다. 1세기 반 넘게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금융과 무역의 허브였지만, 문화적으로는 몰모지, 사막 같은 수식어를 지녔을 정도 사뭇 건조한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창조 도시'를 둘러싼 헤게모니를 놓고 아시아 도시들의 자존심 걸린 경쟁이 이어지

는 가운데 2013년 스위스산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이 홍콩으로 진출한 것을 계기로 점차 변모했다. 정부 차원의 통 큰 투자와 큰손들의 후원이 이어지며 문화 예술 지형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곱씹게 되는 대상, 홍콩 필자는 언젠가부터 해마다 3월 '아트 주간'에 홍콩으로 향하면서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트 바젤 홍콩'이라는 고정 콘텐츠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마다 참신한 '뉴 페이스'를 등장시키면서 도시의 문화 예술적 경계를 점차 확장해나갔다. 팬데믹 전을 돌아보면, 2018년에는 홍콩 최초의 '아트 특화 빌딩'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운 H 퀸스(데이비드 즈워너, 페이스, 화이트 스톤, 칸 템퍼러리 같은 우수 갤러리가 입점해 있다), 2019년에는 중앙 경찰서, 빅토리아 감옥 등 16개 옛 정부 건물을 10년이라는 세월을 걸**



**1** 아트 바젤 홍콩 중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인카운터스' 색션에서는 존 래프먼(John Ralman), 리암 갈락(갤러리 바튼), 허지혜(휘슬갤러리) 등의 작품 18점을 선보였다. **2** 아트 바젤 홍콩 기간에 제공되는 '프라이빗 요트 서비스, 이미지 제공 Rosewood Hong Kong **3** ABHK25에서 올해 처음 제정된 'MGM 디스커버리즈 아트 프라이즈'의 영예는 우리나라 작가 신민(P21 갤러리, b. 1985)에게 돌아갔다. **4** '갤러리즈' 색션에 참가한 글래드스톤 갤러리 부스에서 선보인 아니카 이(Anicka Yi) 작가의 조각 작품 'Thom'(2023-2024)과 평면 작업 'x bLS'(2025). **5, 6** ABHK에서 열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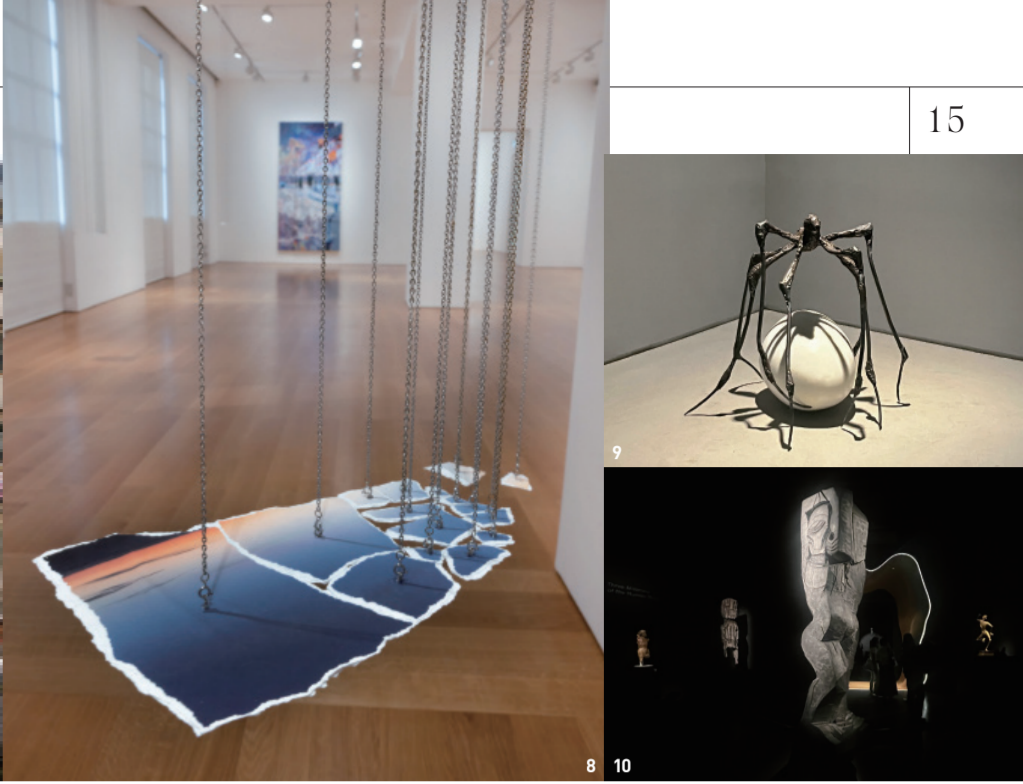
처 복합 문화 단지로 재탄생시킨 장기 재생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타이쿰(Tai Kwun) 센터 등이 도시의 지평을 넓혀주는 사례였다. 전 세계적인 동면이 끝나고 '하늘길'이 다시 제대로 열린 2023년 봄에는 기나긴 공사 끝에 드디어 위용을 드러낸, 아시아 최고의 비주얼 아트 센터를 표방하는 대형 미술관 M+가 기다리고 있었다(2021년 늦가을 문을 열었지만 해외 대다수 방문객들에게는 이때가 첫 만남이었다). 홍콩 정부가 공들여 구릉반도 서쪽 매립지에 세운 시주릉 문화 지구(WKCD)의 핵심인 M+가 일본 거장이자 스타 작가 구사마 아요이 전시를 대대적으로 열면서 화려한 인사를 건넸음에도 2023년 봄은 뭔가 경직되고 어수선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도 M+를 설계한 세계적인 스위스 건축 스튜디오 HdM의 건축가 피에르 드 뮈롱(Pierre de Meuron)을 만나 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소중하게 남았는데, 그는 T자형으로 교차하는 건물의 실루엣을 가리켜 운동 하늘로 치솟은 수직의 도시에서 좀처럼 접하기 힘든 '수평의 미학'이 잘 구현했다면서 "도시의 맥이 잘 흐르도록 하는 에너지를 선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나 이듬해인 2024년 봄에는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늘 하나씩 'must visit' 목록에 보태지던 '새로운 발견'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물론 '애정하는' 공간을 방문하는 것은 여전히 즐거웠지만). 동서양의 혼혈아로서 '제3의 공간'이라 불리는 이 도시의 복잡다단한 매력에 점점 빠지게 됐기에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지난가을 간만에 '아트 바젤' 시즌이 아닌 중추절(中秋節) 기간에 홍콩을 찾았다가 살짝 되살아나는 기운을 느꼈다. 세계 양대 경제 회사인 소더비(Sotheby's)와 크리스티(Christie's)가 홍콩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몸소 증명해 보인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다. 당시 크리스티의 아시아 태평양 본사가 지난 9월 중순 홍콩 센트럴 지역의 새 랜드마크인 더 헨더슨(The Henderson) 빌딩으로 확장 이전하며 늘 전시와 경매를 열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선보였고, 그에 앞서 소더비 홍콩도 센트럴 지역의 랜드마크, 채터에 전천후 공간을 꾸렸다. 시장이야 주기를 타고 온갖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실제로 올봄 홍콩 경매는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다) 중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물리적 투자는 뜻한 대로가 된다. H 퀸스에서 이사를 단행한 한 메가 갤러리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실적이 아주 양호한 편이라 '풍수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농담을 던지곤 한다"고 말했다. 불안감이 없지 않지만 지역적 위치와 면세 지역의 이점에 힘입은 허브로서의 위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얘기가기도 했다. 올봄에는 세상이 더 혼돈에 빠져버렸지만, 어느 정도 저력을 펼쳐 보인 3월이 아니었나 싶다. 미술계만 아니라 스포츠, 음악 페스티벌 등이 어우러져 주요 호텔들이 '만살'을 외치는 광경을 간만에 목도했다. 만반의 준비를 한 홍콩에서는 이 기간을 '슈퍼 마치(Super March)'라 부르며 전략적 마케팅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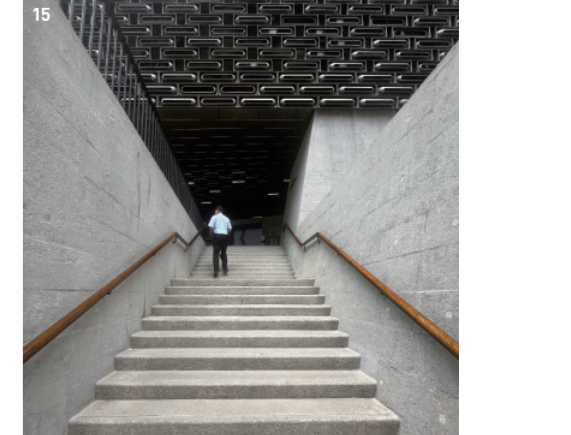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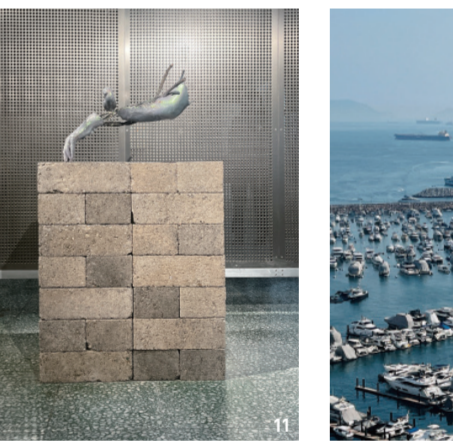
홍콩섬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인 아트 센트럴도 많은 관람객을 동원했다. **7** ABHK 홍보용 간판. 김수자 작가의 '떠도는 도시들: 보따리 트럭 2727 킬로미터' 이미지가 보인다. **8** 가교사실에서 열린 사라 제(Sarah Sze, b. 1969) 개인전. Artwork © Sarah Sze Photo by Ringo Cheung Courtesy Gagosian **9** 하루저엔워크스 홍콩 지점의 루이즈 부르주아 개인전 모습. Louise Bourgeois, 'Spider', 2000, Steel and marble, 52.1×44.5×53.3cm. **10** 소더비 홍콩의 기획전 <Corpus - Three Millennia of the Human Body>. **11** 홍콩 남쪽 원척항 '아트 타운'에 들어선 갤러리 포디움(Podium) 기획전에서 전시된 이예민 작가 작품 'Arm sprouting branches'(2025). **12** 원척항 풍경. **13** M+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Picasso for Asia—A Conversation)전. Photo by Lok Cheng Image courtesy of M+, Hong Kong © Visite à Picasso, a film directed by Paul Haesaerts, Production Art et Cinema, Copyright Eyeworks Film & TV Drama **14** 타이쿰에서 선보인 중국 작가 후샤오위안 개인전 (Hu Xiaoyuan: 'Veering'). **15** 타이쿰 내 미술관 입구. ※ 1, 3, 7 이미지 제공, Art Basel Hong Kong ※ 4-6, 9-12, 14, 15 Photo by 고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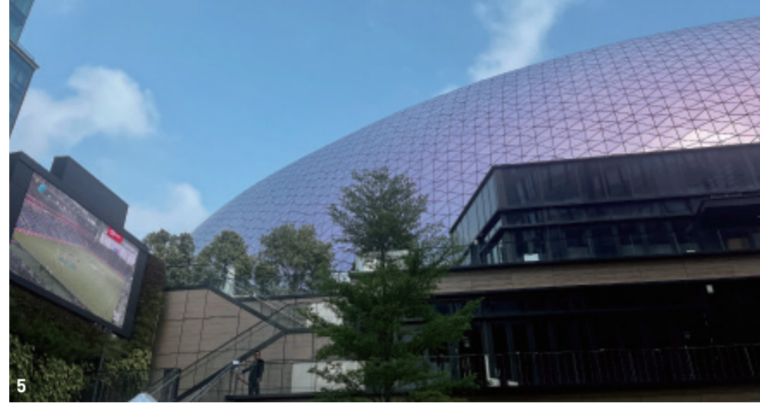
**다국적 홍보와 마케팅의 전장으로 되살아난 '허브'로서의 매력**

예술과 자본의 두 얼굴을 상징하는 중대한 플랫폼인 아트 바젤 홍콩은 올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 세계 42개국에 걸친 2백40개 갤러리가 참여한 이번 페어는 방문객 수만 놓고 볼 때 9만1천여 명을 동원했는데, 국적으로 따지면 70개가 넘었다는 집계도 나왔다. 물론 MZ 세대의 활발한 행보가 눈에 띄는 중국 본토의 큰손 컬렉터들이 수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음은 쉬이 짐작할 수 있지만, 최근 수년간의 분위기 과잉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다채로운 열기가 전시장(홍콩 캔벤스 센터)만이 아니라 도시 곳곳을 타고 흘렀다. 전 시장 VIP 라운지는 다국적 미팅이 붓음을 이뤘고(예컨대 필자가 앉았던 한 미팅 테이블에는 대여섯 명이 앉았는데, 각자 국적이 다 달랐다), 내로라하는 럭셔리 호텔과 바, 그리고 홍콩 미드레벨 지역의 고급 맨션 등에서 열린 '프라이빗 파티'에는 인파가 넘쳐 나머지 몇 식이 번개처럼 사라지기 일쑤였다. 베를린의 아트 페어, 대만, 샤르주 등의 비엔날레, 도쿄의 현대미술

쇼케이스, 연말 오픈을 앞둔 방콕의 미술관 등 저마다의 기린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열띤 경쟁이 첨보전을 방불케 했다. 분명 예년의 전성기에 비해서 아직은 유럽과 미국에서 찾아온 인사가 적어 보였고, 누군가는 중국 본토 편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로 긍정적인 풍경은 타이쿰과 M+, CHAT 같은 미술관에서 외려 자국민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진지하게 감상하는 모습이었다. 도심의 센트럴 지역이나 완차이도 그렇지만 홍콩섬 남쪽 원척항이 갈수록 활기를 띠어가고, 새롭게 동지를 틈 해외 갤러리나 신진 갤러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다. 특히 전반적으로 아시아 작가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깊어진 모양새다(아트 바젤 홍콩에서 P21 갤러리의 신민 작가가 'MGM 디스커버리즈 아트 프라이즈' 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그리고 보니 지난해 현지에서 만난 한 홍콩 지인의 말이 떠올랐다. "그동안 여유 없이 살던 홍콩 사람들이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가 가진 건 뭘까 공궁해하고, 들여다보고, 찾아다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점점 진화하는 구룡반도와 란타우섬의 활기찬 풍경

솔직히 올해는 글로벌 미술 시장의 고군분투 속에서 약간의 '일탈'을 기미한 여정을 모색했다. 다행히 미술계는 잠시라도 '홍콩다운 볼이 돌아왔다'는 반응으로 고무되는 모습이었고, 필자 개인적으로는 홍콩의 대체로운 매력을 몇 가지 더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그중 하나는 지난해 포문을 열었던 팝 컬처 페스티벌인 콤플렉스콘(ComplexCon)으로 올해도 란타우섬에 자리한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렸다(3월 21-23일). 서울에서도 롯데 뮤지엄 전시로 잘 알려진 뉴욕 기반의 예술가 대니얼 아삼이 예술감독을 맡고 마지막 날에는 K-팝 걸 그룹 NIZ(뉴진스)가 라이브 무대를 장식해 일찌감치 화제가 됐던 콤플렉스콘은 음악, 패션, 아트, 스트리트 컬처를 현대 모던 글로벌 플랫폼인데, 브랜드와 아티스트들의 '협한' 협업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예컨대 홍콩의 인기 보이 그룹 미러(Mirror)가 론칭한 브랜드의 옷을 그의 미소 띤 설명을 들으며 살 수 있다). 아시아 최장 케이팝인 '홍핑360'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청동 작품상(별칭 '빅 부다')을 사이에 담을 수 있는 관광 코스로 유명한 란타우섬은 사실 홍

콩 국제공항에서 가까워 공연이나 비즈니스 미팅차 방문해도 트래킹까지 덩으로 즐기고 가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홍콩의 옛 공항인 카이탁 공항 부지에서는 올봄 제일 인상 깊었던 축제의 현상이 펼쳐졌다. 아마도 늘 새로움을 보여주는 전략을 고민했을 홍콩이 아시아 차게 깨낸 카드가 될 구룡반도의 '카이탁 스포츠 파크' 착륙 고도가 낮아 주민들에게 스텝 어린 추억을 선사했던 카이탁 공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도시의 상징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2020년 개통된 MTR 역과 통하고 싱그러운 공원도 끼고 있는 카이탁 스포츠 파크의 꽃은 단연 개폐식 지붕을 장착한 5만 석 규모의 카이탁 스타디움이다. 올봄 '슈퍼 마치의 화룡점정도 막 문을 연 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글로벌 럭비 축제인 '캐세이/HSBC 홍콩 세븐스(Cathay/HSBC Hong Kong Sevens) 2025'였다(흔히 '홍콩 세븐스라 불린다). 사실 럭비 자체는 아시아 지역에서 대중적인 인기 스포츠가 아니지만 1976년 출발한 이 대회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상징적인 '문화+스포츠' 축제로 올해는 3월의 마지막을 생동감 있게 수놓았다. 전 세계 12개 팀이 2박 3일에 걸쳐 참가한 이 대회에는 새 스타디움 효과가 더 활기를 띠면



1-5 '슈퍼 마치의 불리'는 홍콩의 3월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아시아 최대 럭비 축제가 마지막 주말을 장식했다. 5만 석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연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캐세이/HSBC 홍콩 세븐스 2025'가 28일부터 30일까지 펼쳐졌다. 6-8 홍콩 란타우섬에 자리한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콤플렉스콘은 올해 3만5천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서울에서도 지난해 롯데 뮤지엄에서 열린 개인전으로 잘 알려진 대니얼 아삼이 예술감독을 맡고 마지막 날에는 K-팝 걸 그룹 NIZ(뉴진스)가 라이브 무대를 수놓았다. 9 케이팝의 '홍핑360'의 크리스탈 캐빈, 트래킹 코스로 사랑받는 란타우섬은 케이팝에서 커다란 청동 작품상(별칭 '빅 부다')을 사이에 담을 수 있는 관광 코스로도 유명하다. 이미지 제공, Ngong Ping 360, 홍콩관광청 10 홍콩 국제공항 내 캐세이퍼시픽 '더 피어' 라운지의 리트리트(요가) 공간. 캐세이퍼시픽은 라깅스와 불릴 정도로 수준 높은 미식과 휴식 시설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인상적인 더 피어, 더 힐, 더 덕 등의 라운지를 두고 있다. \* 1, 5, 6 Photo by 고성연 \* 2-4 이미지 제공, World Rugby Photo by Alex Ho and Zach Franzen \* 7, 8 이미지 제공, ComplexCon Hong Kong



Exclusive Interview with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

# 예술가로서의 완전한 자유를 향해

팬데믹 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9년 여름, 홍콩섬 센트럴 지역에 자리한 복합 문화 공간 타이퀸에서 일본이 낳은 현대미술계 슈퍼스타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 개인전이 열렸다. 이 전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무라카미 대 무라카미(MURAKAMI vs MURAKAMI)라는 전시 제목 자체에서 언뜻 떠오르는 그만의 다면적인, 혹은 이중적인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스친 적이 있다. 종종 톡톡 튀는 '코스프레' 룩으로 단장한 채 등장하는, 재기와 파괴가 넘치는 캐릭터지만, 우리 앞에 드러내는 이미지를 현란하게 연출하면서도 자신의 작업 세계에 대해서는 무딘히 고민하는 그만의 독특한 여정이 어찌면 꽤 고단할 법해서다. 올봄 아트 바젤 홍콩 기간, 홍콩 컨벤션 센터(HKCEC)에 무라카미에게 헌정하는 대형 전시 부스를 차린 루이 비통과의 20년 넘는 세월을 관통하는 브랜드 협업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 현지에서 직접 일대일 대화로 접해본 그의 면면은 예상을 뒤엎고 훨씬 더 진솔하게 다가왔다.

**슈퍼스타로서의 무라카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작업 속 캐릭터를 형상화한 형형색색의 모자 밑으로 길고 구불구불하게 드러온 머리를 휘날리며 등장해 제법 과한 동작과 포즈를 취하는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 b. 1962). 그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도 해맑게 웃는 얼굴을 한 '꽃(무라카미 플라워) 이미지'는 대부분 접해봤을 정도로 대중에게 친숙한 동시대 아이콘 같은 이 현대미술가가 공식 석상에서 보여주곤 하는 모습이다. 당연히 이 같은 연출은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의 소산이자 자신의 예술 세계를 나를 압축해 보여주는 축소판이기도 하다. '오타쿠'를 자처하는 무라카미 다카시는 흥청거려던 버블 경제의 거품이 꺼진 1990년대 독특한 일본 문화 현상과 미술을 결합한 '니폰 팝(Nippon Pop)'을 이끌어 세계적으로 각인시킨 주인공이다. 고급과 저급, 전통과 현대, 예술과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경계를 해체하고 계급과 취향의 서열도 납작하게 눌러버린 '슈퍼플랫(Superflat)'이라는 독자적 개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언뜻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그게 예술이야?"라는 핀잔도 곧잘 듣지만, 일련화를 전공하고 박사과정까지 밟은 그의 작업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후 미국에 뱃속까지 물든 '심신의 단축박죽' 상태에서 순수 미술과 서브컬처, 세계와 일본, 유일성과 복제성 등 다차원적으로 분열된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서 자신의 생존 조건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뻘뻘해진 예술'로 보는 시선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평론가 사와라기 노이). 어쨌거나 그는 서구 모방주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로 커리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카이카이 키키(이상하고 기이하다는 뜻)'라는 회사이자 갤러리를 이끌어 '일본적인 것'의 세계화를 향해 질주했다. 그 과정에서 2002년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던 루이 비통과 협업을 펼쳐 '만화경의 미학'으로 재해석한 모노그램 패턴을 창조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명적 조우는 역대급 성공을 거뒀고, 브랜드와 작가 둘 다에게 커다란 '완·원'으로 남았다. 홍콩 센트럴 지역의 루이 비통 매장에서 만난 무라카미는 모노그램이 박힌 상·하의를 입고 자신이 협업한 MLB 도쿄 시리즈 야구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마침 LV X 무라카미 리에디션의 두 번째 챗퍼가 발표된 시

점이었고, 우연히 끼 넘치는 배우처럼 역동적인 포즈를 취한 그의 화보를 봤던지라 20년도 더 넘는 과거의 협업 장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니까 물어봤다.

**인간 무라카미의 진솔함, 혹은 전략적인(?) 고백**  
"처음으로 파리에서 큰 전시를 한 때였어요. 마크가 그 전시를 보고 이메일로 제안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루이 비통이 뭘지, 마크 제이콥스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죠." 의외의 답을 하면서 그는 "당시 여성 동료가 '이 협업은 무조건 해야 한다'면서 엄청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라고 부연했다.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은 '슈퍼플랫'의 개념과 잘 어울려서다. 마치가 꺼진 1990년대 독특한 일본 문화 현상과 미술을 결합한 '니폰 팝(Nippon Pop)'을 이끌어 세계적으로 각인시킨 주인공이다. 고급과 저급, 전통과 현대, 예술과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경계를 해체하고 계급과 취향의 서열도 납작하게 눌러버린 '슈퍼플랫(Superflat)'이라는 독자적 개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언뜻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그게 예술이야?"라는 핀잔도 곧잘 듣지만, 일련화를 전공하고 박사과정까지 밟은 그의 작업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후 미국에 뱃속까지 물든 '심신의 단축박죽' 상태에서 순수 미술과 서브컬처, 세계와 일본, 유일성과 복제성 등 다차원적으로 분열된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서 자신의 생존 조건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뻘뻘해진 예술'로 보는 시선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평론가 사와라기 노이). 어쨌거나 그는 서구 모방주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로 커리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카이카이 키키(이상하고 기이하다는 뜻)'라는 회사이자 갤러리를 이끌어 '일본적인 것'의 세계화를 향해 질주했다. 그 과정에서 2002년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던 루이 비통과 협업을 펼쳐 '만화경의 미학'으로 재해석한 모노그램 패턴을 창조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명적 조우는 역대급 성공을 거뒀고, 브랜드와 작가 둘 다에게 커다란 '완·원'으로 남았다. 홍콩 센트럴 지역의 루이 비통 매장에서 만난 무라카미는 모노그램이 박힌 상·하의를 입고 자신이 협업한 MLB 도쿄 시리즈 야구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마침 LV X 무라카미 리에디션의 두 번째 챗퍼가 발표된 시

1 루이 비통은 아트 바젤 홍콩에서 무라카미 다카시 전시를 개최했다. 2018년 루이 비통 재단에서 선보인 캠페인의 일부인 '조조군과 타몬군(2003), 수수께끼 같은 스किन 작품 '슈퍼플랫 젤리피쉬 아이즈 1'(2003) 등을 내세웠다. 또 조각, 판화, 텍스타일 작품은 물론 부스 내 '시크릿' 상영관에서 무라카미의 비디오 작품도 선보였다. 2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의 협업 20주년을 맞이해 올해 2백 점 이상의 루이 비통 X 무라카미 리에디션을 선보였다. 3 일본 전통 화환인 니혼가 기법과 애니메이션, SF, 팝 컬처를 버무린 작업으로 미술계 스타로 자리매김해온 무라카미 다카시. Photo by 고성연 4 Takashi Murakami, 'MAX & SHIMON', 2004. 5 Takashi Murakami, 'Superflat Jellyfish Eyes 1', 2003. Exhibition view, Fondation Louis Vuitton, Paris. 6 'Flowerball' by Takashi Murakami, Collection Louis Vuitton 2009 © Louis Vuitton. \* 1, 2, 4-6 이미지 제공, 루이 비통

하조. 3백 명이 넘는 직원과 함께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회사 일에 임하다 보면 조직 내에서 소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돈의 흐름에 대해 매일같이 걱정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매우 슬프기도 하고요." 사실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개인 브랜드만 보자면, 적어도 커리어나 수입 면에서는 걱정할 게 별로 없었지만 동료들과 후배들을 챙기며 끌고 나가는 가장 같은 리더십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이 또한 그의 영리한 이미지 메이킹 전략인가 싶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가 미술계에 속한 2명의 인물에 대해 진지하게 언급했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한 명은 스타인의 '올드 마스터'인 프란시스코 고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현존하는 동시대 가장 유일한 현대미술가 안젤름 키퍼다. "고야는 작고하기 전 수년 동안 정신이 온전치 않았고, 은둔하며 그림을 그렸는데 캔버스가 아니라 벽에 붓질을 했죠. 기억을 잃더라도 내 손과 눈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자유'라며 이런 상황이 부럽다(?)는 그의 말에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지 않던 질문을 건넸다. 선배 예술가인 안젤름 키퍼(b. 1945)의 수많은 수작 중 '오시리스와 이시스(Osiris and Isis, 1985-1987)'를 늘 '최애 작품'으로 꼽는 이유가 있냐고, "뉴욕 모마(MoMA)에서 그 작품을 봤어요. 영문은 모르겠지만 허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창피할 법한 상황이었는 데도요. 당시 여자 친구가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었지만 나도 모른다고 답했죠." 당시 스물여섯이었다고 말한 그의 웃음 띤 동그란 얼굴을 마주하니 문득 '젊은 무라카미'가 보고 싶어졌다. 글 고성연(홍콩 현지 취재)



# A Century of Grace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디자인은 브랜드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유산이 된다. 과거의 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컬렉션의 가치 역시 말할 것도 없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펜디(Fendi)의 여정은 장인 정신과 혁신을 원칙으로 삼으며 현 세기까지 이어진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 도심에 자리한 펜디 하우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지향적 비전을 만나볼 시간.



### 역사적인 매종, 그찰나의 순간

펜디의 목적은 단지 패션을 선도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진정 즐길 수 있도록 독려했고자 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매우 좁았던 만큼, 펜디의 이런 진보적인 정신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어느 브랜드와 견주어봤을 때도 가치 독보적이다. 매종의 유업을 지켜 온 펜디의 여정은 늘 도전적인 여성상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디자인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1백 년이라는 펜디의 유구한 역사에는 긴 세월에 비례해 기록할 만한 순간이 다수 존재한다. 펜디의 서사는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랜드 창립자 아델 카사그란데 펜디(Adele Casagrande Fendi)와 에도아르도 펜디(Edoardo Fendi)가 로마 중심에 매종을 창립함으로써 펜디의 여정이 시작됐다. 브랜드의 첫 컬렉션으로 의미가 남다른 '셀러리아(Selleria)'는 오늘날까지 주요 컬렉션의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펜디의 옐로 컬러는 페르가메나라는 천연 파피루스 색상의 여행 가방에 적용되면서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다. 최고급 소재를 선별하는 안목과 시대를 아우르는 디자인에 대한 창립자의 저력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초이자 뿌리가 된다. 아델 카사그란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명의 딸 파올라, 안나, 프랑카, 카를라, 알다를 회사 경영에 투입시키며 본격적으로 여성 중심의 가족 경영을 알린다. 5명 개개인의 독창적인 재능과 관점이 더해지니 획기적인 디자인과 미래 지향적인 전략이 정립되었고, 이는 브랜드의 입지를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5명의 딸이 시시하는 바는 창립자의 가족 중심 사고와 최근 공개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대한 영감으로 세계관이 연결된다는 것. 1965년에는 매종의 전성기이자 전환점을 알리는 2막이 열리는데, 당시 천재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와 만나 브랜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는 'Fun Furs'를 뜻하는 FF 로고를 디자인하고, 브라운과 토마코 컬러의 세로 줄무늬 패턴으로 구성된 페퀸(Pequin) 로고를 내세운다. 매종 역사상 무려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그와의 운명 같은 만남은 레디투웨어와 아이웨어를 탄생시켰고, 타임피스와 오토 쿼터 컬렉션까지 카테고리 확장이었다. 무엇보다 '펜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모피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로열메릴리만의 특권이자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던 모피가 럭셔리 하우스의 전통적인 장인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조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탈바꿈되면서 모피의 입지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 1 아카이브 퍼 컬렉션과 리에디션을 교차 친밀한 행사 내부. 2 라 파스타' 백.
- 3 에도아르도 아델 카사그란데에게 붙인 별명에서 영감받은 완성한 다람쥐 모티브 '바게트' 백의 뒷모습.
- 4 1925년에 사용했던 다람쥐 로고. 5 1926년 로마 중심에 문을 연 최초의 펜디 매장.
- 6 1933년에 선보인 페르가메나 컬러의 여행 가방.
- 7 1987년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와 창립자의 딸 5명이 함께한 모습.
- 8 '컬러 패턴을 제작할 때 실제 사용한 스케치. 9 1971년에 제작한 아스투치오 케이프의 첫 디자인 스케치.
- 10 펜디의 역사와도 같은 10개의 백. 11 브랜드를 대표하는 인레이 기법을 적용한 퍼. 12 1983년의 '듀얼리즘'과 2025년에 새로 제작한 모습.



### 1백 년의 시간에 대한 경의

펜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까지 서울을 기점으로 중국,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 국가를 순회하는 <2025 월드 오브 펜디(2025 WORLD OF FENDI)>가 시작했다. 지난 3월, 서울 성수에 자리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매종의 헤리티지와 비전, 브랜드의 노하우가 담긴 스토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펜디는 1백 년의 역사를 담은 10개의 아이코닉한 백과 아카이브 퍼 컬렉션을 재해석한 리에디션을 선보였다. 먼저 192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풍미한 10개의 백을 페르

“세대를 거둬하며 진화하는 펜디(FENDI) 뒤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헤리티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이 서려 있다”

가메나(Pergamena) 컬러의 크로커다일 레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닥터 백에서 착안했으며 1925년에 창립자가 처음으로 선보인 '아델 백', 펜디 디자인의 핵심인 듀얼리즘과 기하학적 미학을 담은 '피카부 백' 등은 물론 1985년에 탄생한 '라 파스타 백'은 가장 특이한 형태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례 없던 새로운 백을 디자인하기 위해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로마를 산책하던 중 푸실리, 마카로니 등 다양한 모양의 파스타를 구입했고, 이를 백 디자인에 녹인 것이다. 메탈 보디와 스트랩 등 셀 파스타의 세이프는 펜디 하우스 역사상 음식과 패션의 연결 고리를 만든 첫 시도였다고 한다. '메이드 투오더(Made-To-Order, MTO)' 프로그램 역시 전시 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인 이벤트였다. 매종의 장인 정신과 창의성, 숙련된 인하우스 장인들의 기술을 집약한 것으로 소재 선택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 피카부, 바게트 백 등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을 선택하고 정교한 3D 자수, 교체형 핸들 등 익스클루시브 디테일을 더해 나만의 백을 완성할 수 있다. 메탈릭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한 이그조티브 레더, 스톤 텍스처의 크로커다일 레더, 아르데코 패턴을 표현한 밉크 인레이 소재도 옵션으로 제공된다.

아이코닉한 백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퍼 컬렉션은 절제된 직선과 유려한 곡선의 조합, 풍부한 디테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이토록 독창적인 디자인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10개의 퍼 작품을 선별했고, 이를 재해석한 리에디션과 함께 전시해 인상적인 광경을 선사했다. 퍼 컬렉션의 시조인 '컬러 페퀸' 보며 재깃은 비버 퍼 소재에 레더를 더해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꼽히며 퍼에 대한 개념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아이템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 V자 형태의 퍼 디테일이 특징인 '아스투치오' 케이프, 정밀한 커팅 기법을 사용해 아스라이 피부를 드러내는 '레이스' 등이 있다. 퍼 컬렉션 역시 메이드투오더 가능하다. 밉크부터 하이 퍼, 이그조티브 퍼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페치워크 형식의 컬러 블록을 필두로 퍼를 활용한 기하학 및 플로럴 패턴은 펜디의 시그니처인 인레이 기법을 통해 정교하게 표현되어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하다. 퍼 소재의 기능과 실용적인 면을 넘어 창의적 디테일과 장식적 면모를 느낄 수 있다.



**THE HISTORY OF FUR**  
펜디는 브랜드의 핵심 요소인 퍼를 창의적인 표현의 주제로 사용하며 새로운 가공법과 재단 기법, 그리고 스타일을 주도하고 있다.

1967 컬러 페퀸(Colour Pequin)	1971 아스투치오(Astuccio)	1983 듀얼리즘(Dualism)	2021 레이스(Lace)

수 있다. 또 그는 펜디의 첫 하이 주얼리인 '펜디 플라보스 파퀴르(Fendi Flavus Parure)' 컬렉션을 2022 F/W 펜디 오토 쿼터 쇼에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펜디 트립티크(Fendi Triptych)' 컬렉션을 이어서 공개했다. 일반적인 커스텀 주얼리에 만족했던 펜디가 하이 주얼리를 새롭게 선보인 건 실로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 새로운 도전과 하이주얼리의 탄생

화려함과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하이주얼리는 원석의 선별부터 연마, 가공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손꼽히는 주얼리 하우스에서도 하나의 컬렉션을 선보이기까지 수년은 걸리니 말이다. 장인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고로 빛은 하이주얼리에 예술의 경지라는 표현을 기꺼이 쓸 수 있는 이유다. 펜디 패션 하우스 역시 하이주얼리의 영롱함에 매료됐다. 펜디 가문의 4세인 주얼리 아티스틱 디렉터, 델피나 텔레트레즈 펜디가 커스텀 주얼리에서 하이주얼리의 경계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 첫 하이주얼리 컬렉션의 포문은 2022 F/W 펜디 오트 쿠튀르 쇼와 함께 시작했다. 하이주얼리에 대한 찬사로 시작된 이 여정은 <2025 월드 오브 펜디> 전시를 통해 한국에 첫선을 보이면서 이어진다. '2025 라디치 로마네 하이주얼리' 역시 델피나 텔레트레즈 펜디가 디자인했으며, 로마를 향한 예찬을 담아 구성된다. '네무스', '폴리아쥬', '사파이어링', '오니리코', '마리아' 등 모두 로마의 자연과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이번 컬렉션은 특히 화려함과 미니멀리즘이라는 양가적 디자인을 선택했고, 비정형적인 실루엣과 장인 정신의 조화로우미 보편적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하이주얼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몇 세대를 이어 내려온 메종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1974년 칼 라거펠트가 스케치한 펜디 자매 5명의 모습에서 영감받아 탄생했으며, 링 5개를 각각 다른 유색 보석으로 세팅해 특별한 피스임을 알린다. 이는 펜디 가문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 BLOOMING GREENERY

푸릇푸릇한 자연의 숭고함마저 느껴지는 '네무스(Nemus)'는 폴 파베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나뭇잎 모티브 사이로 환한 빛을 발하는 사랑과 생명의 상징, 그린릿 에메랄드가 특징이다. 네무스는 라틴어로 숲과 숲을 이루는 작은 나무를 말하는데, 주얼리에 생명력이 깃들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네크리스, 이어링, 브레이슬릿으로 구성되었으며, 컬렉션 중 볼드한 피스에 속한다.



1 네무스 네크리스를 제작하는 과정. 2 볼드한 네무스 링. 3 에메랄드 원석을 포인트로 사용한 네무스.

### ARTISTICRED

로마의 한적한 거리를 걷다 목도하는 덩굴 가득한 벽과 모자이크 타일에서 영감받았다. 식물과 나뭇잎을 뜻하는 '폴리아쥬(Foliage)'는 영감의 원천인 덩굴 모티브를 고스란히 담아 끊어질 듯 이어지는 반복적인 원형 실루엣이 특징이다. 투르말린 중 가장 희귀한 컬러로 알려진 분홍빛 투르말린을 선택해 호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네크리스, 링, 이어링, 브레이슬릿으로 선보인다.



4 폴리아쥬는 로마의 덩굴 가득한 벽과 모자이크 타일에서 영감받은 둥근 실루엣이 특징이다. 5 글래머러스한 폴리아쥬 네크리스. 6 화이트 & 옐로 골드에 희귀한 분홍빛 투르말린을 세팅한 폴리아쥬 브레이슬릿.



7 아델 카사그란테의 딸 5명을 의미하는 사파이어 링. 8 칼 라거펠트가 5명의 딸을 워트 있게 스케치한 그림. 9 딸 5명을 블루, 레드, 그린, 옐로 등 유색 사파이어로 표현했다. 10 옐로 사파이어를 링에 세팅하는 모습. 11 블루 사파이어 링. 12 창립 100주년 행사장에서 선보인 하이주얼리. 13 트립티크 하이주얼리 컬렉션의 핑크 스파넬 다이아몬드 이어링.



### DYNAMICSPARK

거친 듯 유려하게 흐르는 실루엣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잔잔한 파도가 떠오른다. '마리아(Marea)'는 폴 파베 세팅 기법을 적용해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든 빈틈없는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선사한다. 옐로, 핑크 골드로 만나볼 수 있으며 이어링과 링, 두 가지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컬렉션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이뤄 역동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 SOFT & PURE

꿈을 뜻하는 '오니리코(Onirico)'는 펜디 패션 하우스의 DNA를 엿볼 수 있는 하이주얼리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FF 모티브가 비정형적으로 원을 그리는 모습이 마치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리는 물방울의 모습 같다. 잔잔하게 흐르는 곡선의 부드러움을 풀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표현해 주얼리 고유의 순수한 모습이 돋보인다. 에디터 김하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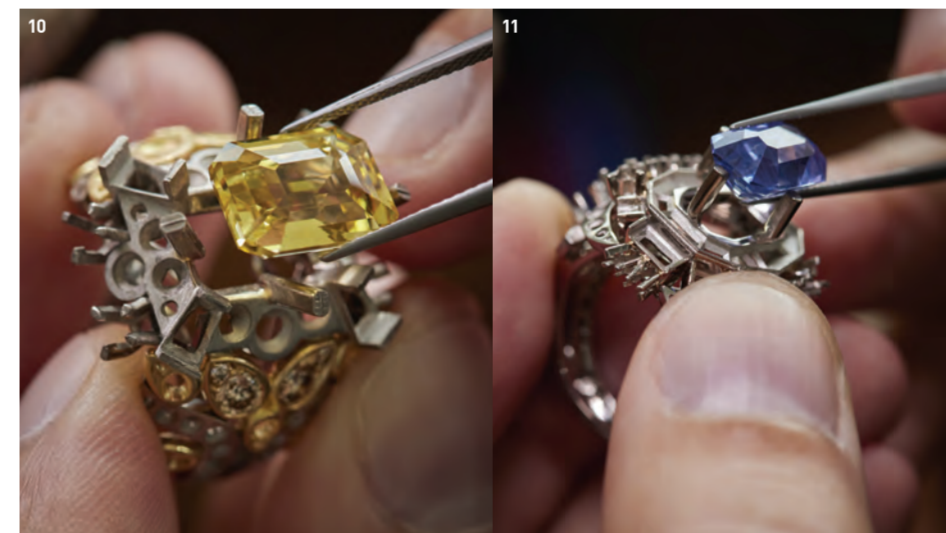


사진: 김홍수 문의: 02-544-1952

### SYMBOL OF FAMILY

펜디 창립자 아델 카사그란테의 딸 파올라, 안나, 프랑카, 카를라, 알다를 형상화한 총 5개의 사파이어 링(Les Cinq Doigts d'une Main)을 소개한다. 각각 다른 다섯 자매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블루, 레드, 그린, 옐로 등 유색 컬러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선택했다. '2025 라디치 로마네 하이주얼리' 컬렉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란 걸 알리려는 듯,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부터 페어 컷, 바케트 컷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세공 기술을 적용해 입체적인 구조가 인상적이다.



13



# The Art of Travel

여행자의 완벽한 여정을 위해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 향상에 주력하는 투미가 탄생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캠페인 'Made for You Since 1975'를 공개하며, 견고하게 쌓아온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그속에서 호기롭게 등장한 전 제품을 탐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50주년이라는 영광스러운 신에 빠질 수 없는 투미의 수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빅터 산즈(Victor Sanz)와 아시아퍼시픽 & 중동 지역 헤드 아리스 마롤리스(Aris Maroulis) 부사장을 만나 감회를 물었다.

### 기념비적인 50주년을 위하여

투미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팝업 이벤트를 개최했다. 과거를 복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요소를 결합해 브랜드 스토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팝업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브랜드의 전 제품을 전시한 것만이 아니다. 오로지 투미만을 위해 사진가 크리스토퍼 앤더슨과 감독 임정란이 만나 50주년을 기념하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리스본을 배경으로 투미의 제품과 이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빅터 산즈는 캠페인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창립 50주년을 맞이

해 투미의 초석이자 핵심 컬렉션을 재조명하며 브랜드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브랜드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꾸준히 진화하는 브랜드의 저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고객들의 공감대를 얻고 싶었고요. 지난 50년 동안 이어온 제품의 높은 내구성, 편리성, 그리고 혁신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미래의 여행자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한편 아리스 마롤리스 부사장과 함께 글로벌 엠버서더 배우 문가영이 50주년 팝업 현장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문가영은 미니 블랙 드레스에 투미의 신제품인 '렉스 미니 트레인 케이스 코스메틱 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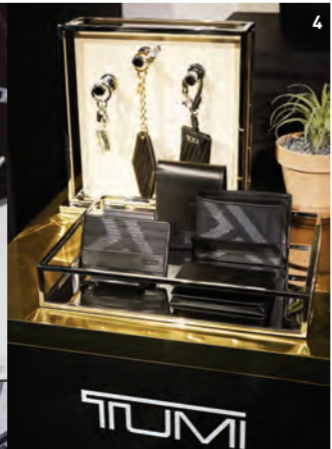
“50주년 팝업 행사는 핵심 컬렉션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꾸준히 진화하고 성장하는 투미의 저력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매치해 전형적이지 않은 우아한 스타일링을 보여줬다. 언제나 혁신을 꿈꾸는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모습이었다.

### 더 완벽한 라인업

시대를 막론하고 '여행'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의미를 찾고자 한다. 누군가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자극을 받기 위해. 일찍이 여행의 중요성을 헤아린 투미는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안전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여행 제품을 디자인해왔다. 지난 50년간의 노하우가 반영된 튼튼한 소재 개발은 물론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적 미감을 발휘하는 중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컬렉션이 바로 '19 디그리 라이트(19 Degree Lite)'다. 투미의 시그니처인 19 디그리 디자인에 테그리스(Tegris) 소재를 결합해 무게는 낮추고 내구성은 높여 하드사이드 컬렉션을 완성했다. 마그네슘 텔레스코프 핸들과 무손을 힘을 장착해 구동성이 뛰어나며 TSA 조합 자물쇠를 더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내부에는 오염에 강한 열 라미네이트 스토리 패치를 더해 듀얼 커트 수납공간을 추가해 실용성까지 놓치지 않았다. 블랙 그라파이트, 블랙시, 티타늄 그레이, 코발트, 엠버 등 총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기내용, 단거리 여행용, 장거리 여행용 등 여행 기간에 따라 세분화된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다.

사진:홍석현/투미 02-539-8160



**INTERVIEW VITOR SANZ** \_TUMI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투미를 한 단어로 정의해달라는 말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빅터 산즈는 '최고 수준(best-in-class)'이라 답했다. 제품 품질과 성능 면에서 절대 타협이 없다는 그를 통해 투미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❶ 왜 '여행'인가. 예부터 사람들은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모험하고자 했다. 이런 도전적 본능은 현대에는 여행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여행은 목적 지향적 이기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지에 도착하기까지 편리성을 극대화해 온전히 여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 사명이자 투미가 존재하는 이유다.

❷ 제품 개발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단순히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보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 카테고리 확장을 확장·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여행 패턴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개발한다. 이러한 '고객 중심(customer-centric approach)' 마케팅은 여행을 넘어 스포츠, 여성 컬렉션으로 카테고리 확장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덕분에 향수, 아이웨어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다.

❸ 기능성, 내구성, 디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기능성, 내구성, 디자인은 상호 보완적 관계다. 말 그대로 '좋은' 제품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핵심 요소의 밸런스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도 브랜드를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

❹ 캐리어는 부피와 소재 부분에 있어 디자인적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캐리어뿐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창의적 작업에는 디자인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찾은 노하우는 디자인, 무게, 내구성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철저한 테스트와 재설계 등을 반복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끊임없는 개선을 시도한다.

❺ 수많은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가장 애착이 가는 컬렉션은? 알파 브라보(Alpha Bravo) 컬렉션이다. 실제 내가 출근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백백(Navigation Backpack)'은 스캐치백, 스캐치 도구, 선글라스, 충전기, 이어폰 등을 넣어도 형태의 변형 없이 완벽한 수납이 가능하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애착 가방이라고 할까.(웃음)

❶ 무려 탄생 50주년이다. 브랜드 총괄 디렉터로서 감회가 어떠한가. 2003년부터 투미와 함께했고 2016년부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활동한 지 올해로 벌써 약 10년이다. 그래서 투미의 대표적인 아이템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가벼운 '19 디그리 라이트(19 Degree Lite)'를 야심 차게 선보이기로 했다. 50주년을 기점으로 브랜드를 새로 창립한다는 마음으로 혁신적인 디자인과 최상의 품질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❷ '19 디그리 라이트'는 '19 디그리'와 어떻게 다른가? 아이코닉한 디자인 코드는 유지하되 신소재인 테그리스 소재를 적용해 어떤 환경과 외부 충격에도 뛰어난 저항성을 자랑한다. 가벼운 무게를 실현한 동시에 투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구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셈이다.

❸ 왜 비정형적인 물결 패턴을 더했는가. 자연, 예술, 건축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다. 단순한 여행 가방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보이도록 설계했다. 정확히 19도 방향으로 흐르는 여러 개의 곡선 홈에서 역동적인 바이브까지 느껴보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투미의 기술력과 기능성을 토대로 자연과 건축의 조형미와 결합하기를 바라고,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로도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

❹ 지금은 캐리어를 중심으로 컬렉션을 완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 카테고리 확장을 하거나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 캐리어와 스포츠 가방은 물론 고급 여성 핸드백, 라이프스타일 액세서리까지 카테고리라는 이미 다양하다. 분야가 어떻든,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새로운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생각이다.

❺ 마지막으로 투미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제품이 출시되기 직전까지 조금의 타협도 허용할 수 없다. 새로운 소재 개발과 스마트 기술 적용, 여기에 신선한 시각을 더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넘어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자신이 있다. 우리는 이미 지속적인 발전과 목적이 뚜렷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일상을 넘어 세계를 넘나드는 여행을 하고 있으므로!



❶ 아시아 태평양 & 중동 지역 총괄 대표로서 투미 탄생 50주년을 어떤 의미인가? 투미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5년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해 뛰어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단지 과거 성과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번 50주년을 발판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꿈꾸기 때문이다. 에디터 김한민



- 1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신제품 '19 디그리 라이트' 컬렉션. 2 실용성이 돋보이는 '보아저' 컬렉션. 3 모노그램 바. 4 키 링부터 지갑까지 다채로운 액세서리 라인. 5 블랙 오닉스 컬러를 입은 '알파 브라보' 컬렉션. 6 투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빅터 산즈. 7 투미의 프리미엄 라인, '투린 컬렉션'. 8 총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되는 '19 디그리 라이트'. 9 아시아 태평양 & 중동 지역 헤드 아리스 마롤리스 부사장.



### INTERVIEW Aris Maroulis

아시아태평양 & 중동 지역 헤드, 아리스 마롤리스 부사장은 1시간 남짓의 인터뷰 내내 '투미'라는 브랜드의 고유성, 여행에 대한 탐구 정신, 그리고 한국 시장의 가치를 여러 번 강조했다.

❶ 한국형 비행기에 실은 여행 가방이 궁금하다. 알파 브라보 컬렉션의 '노마드 백팩'과 '19 디그리 라이트'의 기내용 캐리어다. 백팩의 클래식한 외관도 좋았지만, 업무에 필요한 필수품을 잘 정돈할 수 있는 수납공간 구성에 마음을 뺐겠다. 19 디그리 라이트는 무게가 2.9kg밖에 안 된다. 더 말할 필요가 있다. 나처럼 가볍고 견고한 캐리어를 선호하는 이에게 강력 추천한다.

❷ 아시아 태평양 & 중동 지역에서 브랜드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나? 투미에 합류하기 전, 투미의 우수한 디자인과 뛰어난 제품 성능, 그리고 고객 중심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이 강점을 슬로건 삼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침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봄 시즌 컬렉션과 함께 투미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다.

❸ 한국 럭셔리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은? 한국 소비자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인목이 높다. 브랜드의 장인 정신과 품질, 디자인까지 놓치지 않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K-컬처의 영향으로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기도 하다. 한국만의 문화, 바람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때다.

❹ 매장은 브랜드를 대표한다. 새로운 국가에 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전략적으로 입지가 뛰어난 곳을 선정하고 현지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해 여느 매장보다 크고 화려하게 설계하는 편이다.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작년 5월, 한국 디자인업체 디자인 풀(Design Poom)과 함께 완성한 인천국제공항 매장을 참고해달라. 총 50㎡ 규모로 약 5.8m 높이의 인상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다.



# Savoir-Faire

셀린느의 가죽 제품은 메종 특유의 프렌치 감성을 잘 표현한다. 이는 고유의 디자인적 매력뿐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온 장인 정신이 뒷받침된 가죽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셀린느 메종은 프렌치 정신이 깃든 탁월한 가죽 제품을 만들어낸다. 특히 셀린느의 모든 핸드백은 쿠티르 하우스의 미학적 코드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셀린느 가죽 제품의 독특한 매력은 기능적 디자인과 시간을 초월하는 장인 정신에 기초한다. 1906년대 셀린느 비피아나는 첫 번째 셀린느 가죽 제품 컬렉션을 구상하며 그녀의 유명한 파리지앵 스타일과 높은 수준의 장인 정신을 아꼈고, 이 기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셀린느의 가죽 제품은 가죽 공방을 일컫는 '마로퀴네리(marochinerie)'에서 제작된다. 이곳은 셀린느의 장인이 손으로 펼쳐내는 직관, 그리고 최신 기술의 정밀성이 발휘되는 곳이다. 몇 세대에 걸친 경험으로 숙련된 작업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적용해 최상급 소재로 제품을 제작해왔으며, 이는 셀린느 가죽 제품의 높은 품격으로 이어져 셀린느가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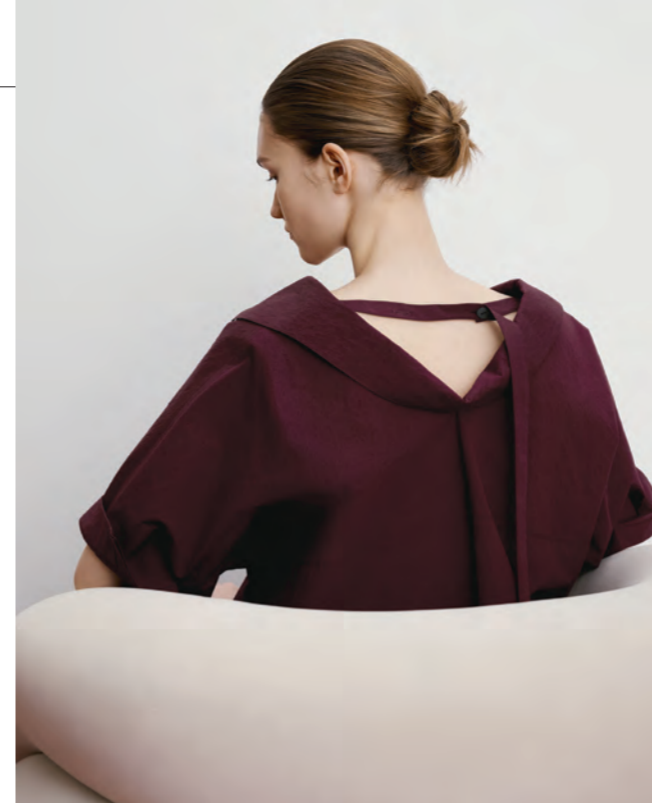
셀린느의 아이코닉한 백인 트리오프 백에서는 이처럼 전통 깊은 가죽 제작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다. 셀린느 가죽 제품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트리오프 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1970년대 로고를 재해석한 트리오프 클래식 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춘 클래식프는 2개의 부분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띤다. 클래식프 윗부분에는 셀린느 로고를 각인해 아이코닉함을 더했다. 여기에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소가죽의 특성을 활용해 내부를 아코디언 스타일의 포켓으로 완성했다. 이는 백의 형태는 유



- 1 셀린느 티 트리오프 백이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모습.
- 2, 4 가방의 앞면에 해당하는 가죽을 재단하는 모습.
- 3, 5 셀린느 가죽 제품을 다루는 장인의 전문 도구.
- 6 셀린느 클래식 트리오프 백 사이니 카프스킨 아머존.
- 7 셀린느 클래식 트리오프 백 내추럴 카프스킨 덴.
- 8 셀린느 티 트리오프 백 사이니 카프스킨 라이트 버건디.
- 9 셀린느 클래식 트리오프 백 나일 악어 블랙.

지하면서도 편리하고 자유롭게 수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죽의 선별부터 공정까지 이 모든 과정은 장인의 전문적인 손길에서 탄생하며 때문에 최상의 완성도를 자랑한다. 트리오프 백뿐 아니라 셀린느의 가죽 제품은 늘 최상의 재료, 그리고 세심한 장인의 정교함 덕분에 오랜 수명을 유지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고유성과 매력을 온전히 드러내 창의성과 기술력에 대한 셀린느의 진심과 헌신을 보여준다.

문의 1577-8841 에디터 성형민



- 1 앞뒤로 입을 수 있는 코튼 톱 가격 미정. 2 소가죽 소재 볼류브 투웨이 백 36만5천원. 태슬 참 모카신 34만5천원.
- 3 토갈라 바스켓 백 36만5천원.
- 4 크링클 디테일의 드로스트링 톱 37만5천원, 드로스트링 패넬 스커트 42만5천원.
- 5 울 소재 오버사이즈 재킷 74만5천원, 타이 스트랩 언벨런스 톱 47만5천원, 울 소재 밴딩 와이드 맨츠 44만5천원. 6 스트라이프 패턴의 후드 점퍼 67만5천원. 모두 래트. 에디터 김하얀

# New Modernism

'일상의 순간을 특별함으로' 래트(LATT)는 선구안적 태도로 현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어가고 있다. 유려한 디자인과 다채로운 컬러 스펙트럼 속에서 새롭게 정의된 정제된 실루엣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 시대 모든 여성의 취향을 관통하는 중이다. 북유럽 감성을 더하고 복잡한 디테일을 말끔히 털어내 브랜드 고유의 미니멀함을 더욱 강화했다.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모던함을 품으니 래트의 행보가 더욱 미더울 수밖에.



사진 브리안트 제관 문의 1800-5700



QR 바로가기  
(스타일 조션일보) 구독자를 위한 쿠폰

# Get



**TIFFANY & CO.**  
 볼드한 감성을 자랑하는 18K 로즈 골드 소재 시그니처 게이저 링크 17개에만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유니크한 감성을 더한 티파니 하드웨어 스몰 링크 링 가격 미정 티파니 문의 1670-1837

# The



**RALPH LAUREN COLLECTION**  
 자동차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섬세한 디테일을 바탕으로 탄생한 새로운 핸드백 라인으로 이탈리아의 정인 정신이 살아 있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했으며, 빈티지 자동차 핸들에서 따온 수제 바늘과 메탈 손잡이가 포인트인 더 랙프 토트백 5백5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 List



**CHANEL WATCHES**  
 지름 38mm의 견고한 블랙 세라믹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18K 옐로 골드 라이닝과 숫자 인디케이터로 특별한 감성을 불어넣은 J12 워치 가격 미정 **샤넬 워치** 문의 080-805-9628

타임리스한 스타일을 지켜줄 스프링 쇼핑 리스트.  
 PHOTOGRAPHED BY YI JOO HYUK



**MONTBLANC**  
 트렌디하고 우아한 카시스 컬러 레더 소재와 빈티지한 감성을 전하는 필라돔 마감 처리의 몽블랑산을 새긴 짐금장치가 돋보이는 모던한 매력의 마이스터스틱 매신저 백 2백22만원 **몽블랑** 문의 1877-5408

**TOD'S**  
 부드러운 가죽을 접은 클러치 형태의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백으로 바레타 액세서리 클로징이 포인트를 부여하며 간결한 우아함을 전하는 클러치 백 가격 미정 **토즈** 문의 02-3438-6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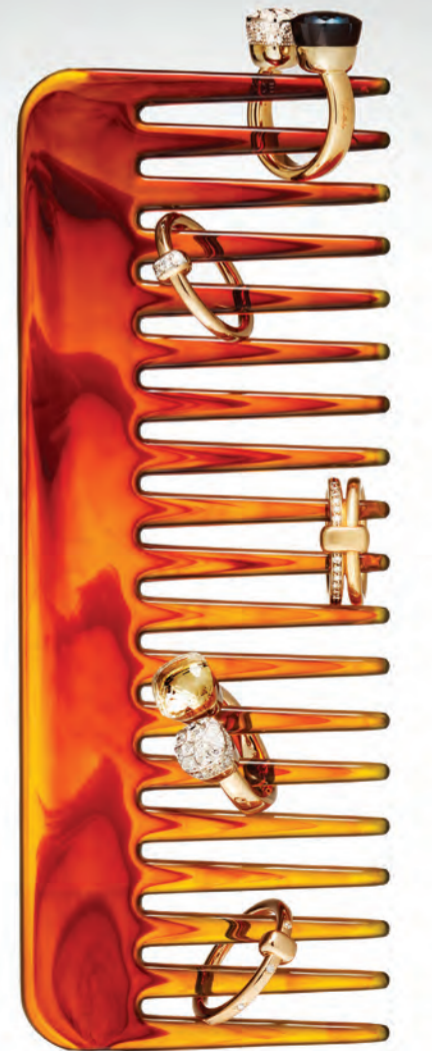
**BLANCPAIN**  
 정교한 디자인과 특허 받은 블랙 세라믹 케이스, 브레이슬릿으로 강인함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워치로 그린 컬러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는 43.6mm 사이즈의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즈 3천7백만원대 **블랑팡** 문의 02-3479-1833



**LATT**  
 고급스러운 질감의 소가죽 소재를 사용해 섬세하게 디자인한 토트백. 상단 지퍼 플러에 노트 스트랩과 메탈 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베이직한 디자인과 깔끔한 솔리드 컬러로 포멀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볼류브 투웨이 백 36만5천원 **래트** 문의 1800-5700



아이즈닉/김보영



**POMELLATO**  
 (위부터) 약 9캐럿의 런던 블루 토파즈 1개와 총 약 0.8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39개를 세팅한 로즈 골드 누도 투아 에 무아 링, 3개의 다이아몬드를 밴드 중심에 포인트로 세팅한 18K 로즈 골드 투게더 링, 36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더블 밴드 투게더 링, 약 9캐럿의 화이트 토파즈와 39개의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로즈 골드 누도 투아 에 무아 링, 9개의 다이아몬드를 루치올레 세팅으로 완성한 18K 로즈 골드 투게더 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에디터 성정민**

into



눈부신 햇살속, 남다른 오라의 그녀와 만나다. PHOTOGRAPHED BY JUNG JIEUN

the

데님 트렌치코트 4백만원대, 바스크 진 2백만원대, 라미네이티드 가죽 소재 인프라이드 샌들 2백만원대 모두 알라리아.

light



블랙 더블브레스트 재킷, 이브닝 셔츠, 크롭트 테일러드 팬츠, 블랙 & 화이트 크로우, 제인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백퀸.



플리아미드 소재의 드레스 2천4백만원대, 비스코스 톱 2백만원대, 쇼츠 1백만원대, 램 스킨 & 브라스 소재의 이어링 90만원대 모두 **벤디**. 블랙 페이턴트 샌들 가격 미정 **퐁포드**.



레더 소재의 보머 재킷, 페이즐리 실크 소재의 블라우스, 러플 스커트, 글라스·우드·레진·메달 소재의 비즈 네크리스, 골드 앵글 모두 가격 미정 **생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비대칭 미니드레스 2백9만원, 블루 컬러 울 가격 미정, 드레이프 밴글 69만원 모두 페라가모.



실크 모슬린 케이프, 코튼 소재 톱, 데님 팬츠, 패브릭 & 그로그랭 메리제인, 메탈 & 글라스 펄 & 스트라스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사넬.

헤어 박희승  
메이크업 이아영  
모델 배윤영 (Kplus)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알라리아 02-6905-3578  
맥퀸 02-6105-2226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벨로  
02-6105-2228  
펜디 02-544-1925  
통 포트 02-6905-3534  
페라가모 02-3430-7854  
샤넬 080-805-9628  
프라다 02-3442-1830  
루이 비통 02-3432-1854



레드 브라 톱, 그레이 울 코루넥 스웨터, 샤이니 레더 스커트, 블랙 코튼 브리프, 메탈릭 토캡 새틴 펌프스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드롭 요크 재킷, 원 레그 팬츠, 슬림백 펌프스, 에일룸 펜던트 이어링, 미드나잇 필 소트와르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브랜드 레터링 로고를 수놓은 코튼 티셔츠 가격 미정 **디올 맨** 문의 02-3280-0104, 음각 처리한 모노그램 패턴이 특징인 스웨이드 소재 트랙슈트 재킷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더블브레스트 디자인에 바이커 벨트를 가미해 색다른 맛을 제안하는 램 스킨 소재 쇼트 트렌치코트 8백60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 Spring Standard

새 계절의 '신상'만큼은 놓칠 수 없다. 잘 재단된 테일러드 재킷부터 편안한 데님 재킷, 스포티한 점퍼까지, 봄 스타일링의 지침서가 되어줄 남자 아우터 4.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블드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코튼 셔츠 2백27만원, 간결한 더블브레스트 테일러드 재킷 3백90만원 모두 **돌체앤가바나** 문의 02-3442-6888

더블 G 로고를 다한 데님 재킷 가격 미정 **구찌** 문의 02-3452-1921 **에디터 김하얀**



## '아트 위크'에 머무는 로즈우드 홍콩(Rosewood Hong Kong) 장밋빛 노을과 푸르른 항구의 축복

빅토리아하버를 두고 홍콩섬 건너편 구룡반도의 인기 지역인 침사추이에는 언젠가부터 여행자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손꼽히는 럭셔리 호텔이 있다. 가슴이 탁 트이는 '파노라마 뷰'로 홍콩의 상징적인 항구를 감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한 로즈우드 홍콩(Rosewood Hong Kong). 홍콩의 문화 예술을 가장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봄날(2019년 3월) 문을 연 이 호텔은 세계적인 현대미술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한데, 팬데믹 여파로 상당 기간 해외 방문객들을 거의 맞이하지 못했지만 2년 전부터 '하늘길'이 다시 자유롭게 열리면서 해가 갈수록 치솟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올봄에는 다국적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여기저기에서 펼쳐지면서 열기 가득한 풍경이 호텔을 감쌌다.



**다채롭고 빼어난 미식과 수준 높은 웰니스의 보고** '슈퍼 마치(Super March)'로 명명할 만큼 각종 행사가 많은 3월, 특히 아트 페어가 열리는 마지막 주는 그저 호텔에서의 여유를 즐기는 것은 힘들다. 그래도 호텔이 내세우는 미식과 더불어 실속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놓치기는 아쉽다. '금강산도 식후경'인 데다 마칭 로즈우드 홍콩에는 풍요로운 미식의 스펙트럼과 심신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호텔 안팎으로 펼쳐져 있다. 광둥 요리 중에서도 '진짜배기'라고 일컬어지는 순덕(Shunde) 요리가 감탄을 부르는 더 레거시 하우스(The Legacy House)와 인도 길거리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 챗(CHAAT) 같은 미술 랭 맛집, '육식파'라면 솔깃할 스테이크 맛집 헨리(Henry) 등 레스토랑과 아시아 베스트 바(bar)로 선정된 칵테일 바로 라이브 재즈를 즐길 수 있는 다크사이드(Darkside) 등 10여 개의 미식 공간은 호텔의 매력을 한껏 높여준다. 또 호텔과 연결된 K11 뮤제아의 전시 공간들도 있지만 호텔 내부에 곳곳에 흥미로운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어 '아트 산책' 프로그램을 신청해 감상해볼 만하다. 로비에서 건너주는 린 채드윅(Lynn Chadwick)의 청동 조각부터 시작해 조식 뷔페로 친숙한 홀트 카페(Holt's Café)의 수호신 같은 크리스탈 공작 시리즈(콜롬비아 아티스트의 작품이다), 행 집안의 소장품으로 영국 스타 아티스트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Zodiac 시리즈)이 걸려 있는 티 라운지 버터플라이 룸, 4 3월 말 아트 바젤 홍콩 기간에 완차이의 전시장과 호텔을 오가는 '프라이빗 요트' 서비스는 교통 체증을 잊게 해준다. Photo by 고성연 5 인도어와 아웃도어를 아우르는 방대한 면적(3,716㎡)을 뽐내는 웰니스 센터 아시아 홍콩 역시 기억해둘 법하다. 특히 프랑스 브랜드 곁랑과 손잡고 현지 맞춤형으로 개발한 스파는 부드러운 실크와 천연 욕을 활용한 기법으로 지친 피부와 근육을 달래주는 인성적인 효과를 자랑한다. 로즈우드 홍콩을 택한다면 다양한 요가 세션, 인피니티 풀 같은 시설은 물론 아름다운 빅토리아하버를 벗 삼는 '행복한 조깅'도 놓치지 말자. 글 고성연(홍콩 현지 취재)

내로라하는 세계 유수 도시에서 고층 건물로 뒤덮이고 인구밀도까지 높은 도심에서 누리는 '전망'은 그 자체로 럭셔리다. 홍콩섬 부촌인 미드레벨 지역의 호화 맨션에서 내려다보는 운치도 남다르지만 빅토리아 부둣가를 낀 침사추이에서 다소 높은 지대에 펼쳐진 로즈우드 홍콩(65층짜리 건물)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객실을 들어서는 순간 가슴을 질로 열어주는 듯 호쾌하다. 특히 4백13개 객실 중 대다수가 각도를 달리한 '하버 뷰'를 품고 있는 시원한 전망은 입이 아프도록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로즈우드 홍콩의 상징 같은 자랑이다. 맞춤형 버틀러(집사) 서비스와 매너(Manor) 클럽 라운지를 제공하는 상층부의 91개 스위트에서 더 매력적인 풍경을 만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침사추이를 보금자리 삼아 홍콩섬을 바라보다** '로즈우드(Rosewood Hotels & Resorts)'는 1979년 미국 델라웨어의 석유 재벌 H. L. 헨트의 딸인 캐롤라인 로즈 헨트가 세운 럭셔리 호텔 브랜드다. 2011년 인수를 거쳐 현재는 홍콩에 본사를 둔 로즈우드 호텔 그룹의 소유이며 전 세계 16개 국가에 31개 지점을 두고 있다. 로즈우드 홍콩은 아시아 대표 부호인 첩(Cheng) 집안이 이끄는 뉴월드 그룹이 아심 차게 추진한 침사추이 일대의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 봄 태어났다. 오피스 빌딩과 로즈우드 레지던스, 아트와 소품들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인 K11 뮤제아(K11 MUSEA) 등과 커다란 한 덩어리를 이루는데, 이 일대를 '빅토리아

아 독사이드(Victoria Dockside)라 부른다. K11 셀러지 이자 세계적인 아트 컬렉터로도 잘 알려진 에이드리언 첩의 동생 소냐 첩이 로즈우드 호텔 그룹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로즈우드 홍콩이 아시아 최고 권위를 지닌 현대미술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ABHK)의 공식 파트너라는 점은 놀림치 않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바로 질문을 던질지도 모를 것이다. 럭셔리 호텔이 즐비한 홍콩에서 미술 컬렉터들이 어째서 굳이 구룡반도에 머무느냐고. ABHK의 주 전시장인 홍콩 컨벤션 센터(HKCEC)는 홍콩섬 원차이에 자리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로즈우드 홍콩은 ABHK 기간에 맞춰 '프라이빗 요트' 서비스를 꾸려 투숙객들이 편하고도 생동감 있는 경험까지 누리면서 전시장을 오갈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한다. 삼페인을 훌쩍이면서 물살을 가르는 하얀 요트로 침사추이와 원차이를 느긋하게 오가는 묘미는 색다르다. 올봄 아트 주간에는 입소문이 났지만 요트도 손님으로 가득해 추가해 운영하는 스케줄을 꾸려야 할 지경이었다. 사실 대중교통편도 나쁘지 않다. MTR과 연결되어 있는 데다 또 다른 매력의 승선 경험을 선사하는 스타 페리 터미널이 자리에 있고, 택시로도 15~20분이면(교통 체증이 별로 없을 경우) 홍콩섬 주요 지역에 도착할 수 있다. 게다가 맞은편 홍콩섬이 한눈에 들어오는 산책길(자) 관광 명소인 '스타의 거리'를 비롯해 미식과 쇼핑, 야경 등 침사추이만의 매력이 넘쳐난다.

**1** 홍콩 구룡반도 침사추이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로즈우드 홍콩이 하를 풍경을 수놓고 있다. **아시아 대표 부호 첩(Cheng) 집안이 이끄는 뉴월드 그룹이 추진한 침사추이 일대의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 봄 태어났다.** **2** 로즈우드 홍콩의 '그랜드 하버 뷰 킹' 객실, 80% 가량의 객실이 시원한 '하버 뷰'를 품고 있다. **3** 행 집안의 소장품으로 영국 스타 아티스트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Zodiac 시리즈)이 걸려 있는 티 라운지 버터플라이 룸. **4** 3월 말 아트 바젤 홍콩 기간에 완차이의 전시장과 호텔을 오가는 '프라이빗 요트' 서비스는 교통 체증을 잊게 해준다. Photo by 고성연 **5** 인도어와 아웃도어를 아우르는 방대한 면적(3,716㎡)을 뽐내는 웰니스 센터 아시아 홍콩 역시 기억해둘 법하다. **6** 아시아 베스트 바(bar)로 선정된 칵테일 바로 라이브 재즈를 즐길 수 있는 다크사이드(Darkside)의 운치 있는 인테리어. \* 1-3, 5, 6 이미지 제공\_Rosewood Hong Kong



NEW LIPSTICK

나스 익스플라시 립스틱 #382 데카덴스 로즈힙 시드 오일과 히알루론산 성분을 함유해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컬러 지속력도 좋아 자주 손이 간다. 3.8g 5만2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 Editor's Pick

4월은 건조한 날씨에 푸석해진 피부와 머릿결에 영양을 채우고 싱그러움 봄 내음을 더하는 시간.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모로칸오일 스킨케어 밸런싱 샴푸 모로칸오일의 기술력으로 탄성한 '보태니컬 테라피 블렌드'가 최상의 두피 컨디션을 선사한다. 250ml 3만9천원대. 문의 1666-5125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NEW CANDLE

트루동 클래식 캔들 알타이르 섬세한 플로럴 향에 은은한 나무 향을 더해 향긋하면서도 묵직한 향기를 선사한다. 270g 17만원. 문의 02-6905-3324  
\_by 에디터 성정민

플레드보 보떼 2025 러브 컬렉션 래디언트 쿠션 파운데이션 듀이 리미티드 케이스 프랑스 아티스트 듀오 알렉스 & 마린과 협업해 운명의 붉은 실, 플레드보 보떼의 열쇠를 모티브로 탄생시킨 케이스가 특징이다. 케이스 4만5천원대, 리필 9만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시슬리 센스티브 스킨 수딩 케어 최소 및 최상의 성분으로 만든 민감한 피부 전용 스킨케어로, 바른 후 금속 진정된 피부를 만날 수 있다. 40ml 28만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성정민



NEW PERFUME

조 말론 런던 비치 블로섬 코롱 싱그러움 라임과 코코넛 워터 향, 따뜻한 톱카 빈이 어우러지니 아자수로 둘러싸인 해변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다. 100ml 24만5천원. 문의 02-6971-3228  
\_by 에디터 김하얀

데코르테 미모사 솔리드 퍼퓸 부드럽고 잔잔한 미모사 향이 요즘 날씨랑 잘 어울린다. 고체 퍼퓸으로 부드럽게 발리며 한 손에 쥐어지는 앙증맞은 사이즈가 특징. 2g 6만9천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신정임

NEW EYE CREAM

발몽 바이탈 컨투어 크림 아근으로 다크서클이 짙어질 때마다 사용해보니 눈 밑이 제법 환해졌다. 웃을 때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눈가 주름도 함께 없어진 듯. 눈가 피부가 고민이라면? 적극 추천! 15ml 27만원. 문의 070-4352-5203  
\_by 에디터 김하얀



아베다 지구의 달 리미티드 에디션 보태니컬 리페어™ 본드-빌딩 스타일링 크림 리페어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손상된 모발을 효과적으로 케어하고 제품 구매 시 수익금 일부를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 기부한다. 100ml 3만2천원대. 문의 02-3440-2905  
\_by 에디터 신정임

아르마니 뷰티 파워 패브릭 프로 롱웨어 벨벳 매트 파운데이션 1.75oz 실리카 콤플렉스 성분이 들어 있어 맑고 유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자연스러운 발색과 산뜻한 마무리감이 취향 저격이다. 30ml 9만3천원대.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신정임



1 몽블랑 '비스포크 남' 출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몽블랑이 사용자의 필기 습관에 맞춘 만년필 남 '비스포크 남'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필기 속도와 펜을 잡을 때의 기온기, 선호하는 남의 굵기 등 개인의 필기 습관을 고려해 맞춤형 남을 추천·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수준 높은 글쓰기 경험을 선사한다. 문의 1877-5408

2 사넬 사넬 25 핸드백 캠페인 모델 제니 발탁 사넬에서 2017년부터 엠베서더로 활동해온 글로벌 탑 가수 제니를 사넬 25 핸드백 캠페인 모델로 발탁했다. 세계적인 광고 영상 감독 고든 본 스타이너 (Gordon von Steiner)가 사넬 25 핸드백의 높은 활용도와 다양한 스타일링을 뉴욕의 거리를 담은 짧은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캠페인 영상으로 표현했으며, 자유로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했다. 문의 080-805-9628

3 래트 스웨이드 태슬 참 모카신 북유럽의 라이프스타일과 빛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 래트에서 스웨이드 태슬 참 모카신을 선보였다. 태슬 디테일과 로고 엠블럼 참 장식이 돋보이며, 산발 뒷부분과 안창 아랫부분을 이어주는 박음질을 통해 주머니 모양으로 만드는 볼로니아 공법을 적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문의 1800-5700

4 로에베 (크라프트월드) 전시 도쿄 개최 로에베에서 순회 전시로 기획된 <크라프트월드 (Crafted World)> 전시를 일본 도쿄 히라주쿠에서 3월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스페인 왕실

# Showroom



의 공식 공급 업체로 임명된 19세기, 첫 일본 매장을 오픈하고 LVMH에 인수된 20세기 등 장인 정신의 여정을 담아냈다. 로에베 공방을 재현한 공간과 공중에 매달려 움직이는 플라워 정원 등의 전시 공간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18-6416

5 포엘라토 새로운 글로벌 엠베서더, 필립핀 르로이-뷔리우 이탈리아 주얼리 브랜드 포엘라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랑스-이탈리아 출신의 배우 필립핀 르로이-뷔리우를 새로운 엠베서더로 발탁했다. 브랜드 CEO 사비나 벨라는 고질적인 관습에 도전하고 여성의 권익을 강조하는 배역을 맡아온 필립핀 르로이-뷔리우가 강한 여성을 위해 주얼리를 제작하는 포엘라토의 브랜드 철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엠베서더라고 전했다. 문의 031-5170-2168

6 투미 알파 브라보 컬렉션 퍼포먼스 럭셔리 브랜드 투미가 알파 브라보 컬렉션을 제안한다. 우아한 블랙과 부드러운 브라운의 조합에 새롭게 선보이는 블랙 오크스 컬러로 제작했으며 나일론, 폴리우레탄 등 고성능 섬유로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넉넉한 수납공간이 특징인 서치 백팩과 아웃도어를 모티브로 제작한 리저브 백팩, 노마드 백팩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39-8160

7 셸린스 롤루 백 셸린스에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롤루 백을 제안한다. 곁에 살아 있는 최상급 레더로 제작했으며, 셸린스 레더 제품에서 볼 수 있



는 손-백 테크닉(뒤집어 꿰매기)을 적용해 입체적이고 통스름한 형태가 특징이다. 블랙-라이스-글레이서 컬러와 트리온프 캔버스 소재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반디나 아이템이나 품퐁 키 링을 매치해 매력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문의 1577-8841

8 디올 <크리스찬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전시회 파리 장식미술관을 시작으로 런던, 상하이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크리스찬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전시회가 4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 한국의 상징적인 아티스트가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며 레이디 디올(Lady Dior)만을 위해 마련된 매력적인 전시 공간을 만나볼 수 있다.

\*입장권은 2025년 4월 2일부터 디올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www.dior.com/ko\_kr/fashion/designer-of-dreams

SATURDAY 2025.4.19 — SUNDAY 2025.7.13

# 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DONGDAEMUN DESIGN PLAZA, ART HALL 1  
DDP 아트홀 1관



© Paolo Roversi/Art+Commerce

\* 상영시간표는 해당 공연장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문의: 02-6971-3228



RALPH LAUREN